

50th
1963-2013
속초시승격 50주년

속초의 문화 상징 50選

설악산, 아바이 마을, 속초역... 인간과 자연,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의 키워드를 만난다



속초문화원



속초의 문화 상징
50選

발 간 사

2013년은 속초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속초라는 지명은 조선 단종 2년에 편찬한 『세종실록지리지』에 처음 등장합니다. 조선 시대의 속초는 양양도호부 도문면과 소천면의 2면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도문면에는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웅진리, 신흥사가 속했고, 소천면에는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명인 속초는 양양도호부 소천면 속초리라는 작은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일제 시대에 들어와 도문면과 소천면이 통합되어 도천면으로 개칭되고 다시, 1937년 속초리로 면사무소를 이동함과 동시에 도천면을 속초면으로 개칭하였으며, 1942년 속초읍으로 승격하게 됩니다. 작은 포구였던 속초리가 지역의 대표적인 지명으로 떠오르는 계기는 속초항의 정비로 인한 포구의 발달 때문입니다. 속초항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레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지역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신흥민이 속초에 유입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1963년 속초시로 승격하게 됩니다.

이같은 속초시의 발전과정을 통해 우리는 속초라는 지명에 어업, 농업, 산촌, 실향민 등의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해바다와 설악산, 두 개의 석호(청초호와 영랑호)라는 자연 환경과 전쟁이라는 근대사의 사건이 만든 실향민문화가 함께 융합하여 속초 고유의 문화적 특징을 갖게 한 것입니다

속초문화원은 이같은 속초의 문화적 특징과 속초문화의 정수를 찾기 위해 ‘속초의 문화상징 50선’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문화상징은 속초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간적, 시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오늘까지 영향을 끼친 대표적 문화상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고른 선정을 위해 지난 2007년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100대 문화상징’의 분류법을 바탕으로 ‘자연, 건축, 역사, 사회와 생활, 문화예술, 인물’로 구분하였습니다.

속초는 양양이나 고성에 비해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한 속초의 발전과 함께하는 현대적 문화도 생성되어 신구의 아름다운 조화가 이뤄지는 문화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같은 분류는 이제 시작일뿐입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콘텐츠가 되어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토론과 합의를 통해 속초의 문화상징을 선별해 주신 향토사연구소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속초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책들을 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초문화원장 노광복



목차

반포간사

귀부곡

신흥사

향성사기 3층석탑

향무정

신흥사 범일탑

신흥사 부도근

고택

속초 등대

속초 벽

서울악해맞이공원

부각

조양동 부유정

도문동

동명동성당

마비마을

속초시립박물관

동명동속초성당

강천마을

신인이 점지해준 사찰

사라진 역사의 기억

바람의 노래가 들리는

고향을 갈망하는 마음

역대 고승들의 자취

선인의 손길을 간직한

속초 앞바다를 지키는

동해북부선의 기억

새천년의 희망이 깃든

선사시대의 흔적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양촌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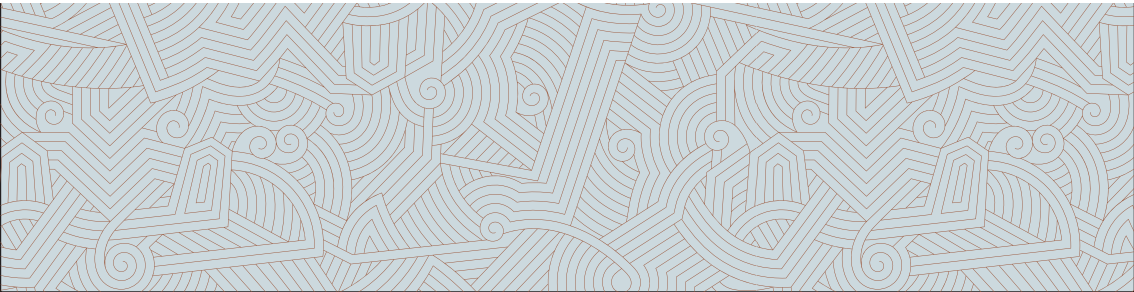
바다를 품은 정면

신령의 그림자만이 만나는 마을

속초문화의 집대성

고려의 흔적을 발견하다

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달

- 허규현
- 박상희
- 미석범
- 김수석
- 오윤환
- 유정호
- 이기섭
- 설의산 비경의 장명가 · 사진작가
- 속초의 미래를 설계한 지역의 어른
- 양양만세아카데미 이끄는 독립운동가
- 북강사자박물관을 되살린 진정열한 예인
- 한처럼 살다간 조선의 선비
- 21명의 선원들을 구한 살신성인의 선장
- 사람과 사를 사랑한 속초의 슈바이처

엑스포공원

함흥냉면

대표항

오징어순대 · 마바비순대

노징머

책산본천

갯배

식혜

젓갈

명태

속초관광수산시장

속초의 전전후 유원지

함흥에그엠티

동해안 대표 포구

실형민 대표음식

속초 경제상상의 주역

찾쳐온그향의 날개를 고친

그현대사의 아픔에 신곡

시형영민의 밤도둑

곰산의 손맛

머리부터 꼬리까지

동해안 별미여행

사회와 생활



선악동 소나무

병곡정

외봉치

범바위

병랑호

청호호

청대산

선악산

비선대

권금성

지역

문화예술활동

선악문화제

속초도문농요

속초도리원농악

속초북청사자놀이

매곡이노기

문화유산

마을을 지켜주었던

신비의 음모를 숨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영랑호에 깃든 호랑이

화랑의 전설이 깃든

철새의 보고

병곡을 펼친 듯 아름다운

국내 최고의 명산

시인 문객의 사랑을 받은

권금사와 김장사의 전설

천박한 풍토를 개척한

속초시민의 두레만

구성진 가락

글자들이의 진수

실황의 애환

개인을 넘어 지역의 기록

85

87

89

91

93

95

99

101

103

105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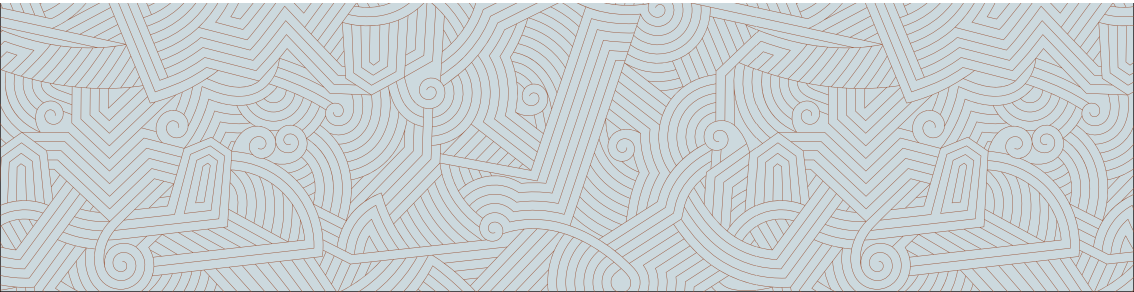
109

111

113

115

117



문화상징_1

기 진 축



신인이 점지해준 사찰

신 흥 사



설악산 입구에서 울산바위 방향으로 가면 만나게 되는 설악산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신흥사(新興寺)의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 진덕여왕 6년(652년), 자장율사는 현재의 켄싱턴호텔 자리에 향성사(香城寺)와 현 내원암(內院庵) 자리에 능인암(能仁菴)을 창건하였다. 하지만 신라 효소왕 7년(698)에 향성사와 능인암이 모두 불타 버려, 효소왕 10년(701)에 의상대사가 능인암 자리에 절을 고쳐 짓고 이름을 선정사(禪定寺)라 하였다.

선정사는 900여 년 그 자리를 지켜오다가 조선시대인 인조 20년(1642)에 화재가 나서 완전히 소실되고 만다. 이에 인조 22년(1644)에

승려 영서, 혜원, 연옥 등이 선정사 아래쪽에 절을 짓고 이름을 신흥사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선정사가 소실된 후 정진 중이던 900여 명의 다른 승려들은 이곳을 떠났으나 영서, 혜원, 연옥 세 승려는 유서 깊은 절이 폐허가 된 것을 가슴 아파했다. 이들이 중창에 힘을 기울이고 있을 때, 세 분 스님 모두의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이 땅은 수 만대에 걸쳐 삼재(三災)가 미치지 않는 신성한 지역이니 여기에 절을 지으라고 점지해 주었다. 이 자리가 현재의 신흥사 자리이며 신흥사(神興寺)란 신성한 지역이라고 점지해 준 데서 붙여진 것이다.

신흥사(新興寺)는 1912년 31본산 제도 실시 때부터 건봉사(乾鳳寺)의 말사로 있다가, 1971년에 건봉사 대신 대한 불교 조계종(大韓佛敎 曹溪宗) 제 3교구 본사로 승격되어 현재 25개 암자를 거느리고 있는 설악산의 대표적인 절이 되었다. 원래 이름은 신흥사(神興寺)였는데 1993년에 신(神)자를 신(新)으로 바꿔 신흥사(新興寺)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신흥사의 사천왕문을 지나면 보제루라는 장방향 누각이 있는데 극락보전으로 가려면 그 아래를 지나야 한다. 높이가 낮아 대부분의 성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불교탄압이 심하던 조선시대에 유생들이 신흥사에 몰려들어 유흥을 즐기기도 했는데, 이때 고개를 뺏뺏하게 치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조성되었다는 설이 있다.

불상은 선정사 때 봉안된 것으로 의상이 직접 조성한 3불상의 하나이다. 현재 절에는 지방유형문화재 제 14호인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강원도 지방유형문화재 제 15호인 경판, 강원도 지방유형문화재 제 104호인 보제루 등이 있다. 이밖에 중요문화재로 보물 제443호인 향성사지 삼층석탑과 순조의 하사품인 청동(靑銅)시루와 범종(梵鐘), 경판(經板) 227장, 사천왕상(四天王像) 등이 있다.

사라진 역사의 기억

香城寺址三層石塔

향성사지 3층석탑



《신흥사기》에 따르면 신라 진덕여왕 6년(652년), 자장율사가 현재 켄싱턴호텔 자리라고 추정되는 곳에 향성사라는 사찰을 창건했다. ‘중향성 불국토’라는 뜻의 향성사는 그로부터 46년 뒤인 효소왕 7년(698년)에 화재로 소실되어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이곳이 절터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향성사지3층석탑이다. 보물 제 443호로 지정된 이 석탑은 현존하는 신라 석탑 중 가장 북쪽에 있다.

《신흥사기》를 보면 자장율사는 향성사를 창건한 뒤 9층 석탑을 세우고 불사리를 봉안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원래 이 석탑이 9층탑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 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외곽적인 균형으로 볼 때 3층 석탑이 분명하며 양식 역시 2층 기단에 3층 석탑으로 전형적인 통일신라 하대의 양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단의 각 부재나 옥신(몸돌), 옥개(지붕돌)의 조성

수법은 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양식이지만 기단부의 약화, 둔중한 지붕돌(옥개석)의 형태와 치석으로 볼 때 전성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8세기 말에서 9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탑의 기단부는 8매의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4매의 장대석으로 기대를 마련하고 1층 기단을 받치고 있다. 1층 기단은 크고 작은 8개의 면석으로 이뤄져 있는데, 각 면 위에는 우주(양기둥)와 탕주(버팀기둥)를 양각으로 표시했다.

1층 기단 위에 있는 1층 갑석은 5장의 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석의 경사는 급하게 되어 있고, 면석 위에는 2층 기단부를 받치기 위해 사각 2단의 괴임대를 마련하였다. 2층 기단면은 8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 우주와 2개의 탕주가 양각으로 되어 있다. 또한 상대갑석은 4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는 부연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갑석 윗면은 평평하고 아무런 장식 없이 1층 탑신(塔身)을 받치고 있다.

탑신부(몸돌)는 1매의 돌로 구성되어 있고 면마다 양쪽에 우주를 양각으로 나타내고, 1층 탑신과 2층 탑신 높이의 비가 3:1의 체감으로 전체적인 모습이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옥개석(지붕돌)의 층급 받침은 전형적인 신라 석탑과 마찬가지로 5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끝의 전각은 반전되어 있으나 각이 경미하여 둔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966년 12월 해체 보수된 적이 있는데 이 때 발표에 의하면 3층 탑신(탑몸돌) 윗면에 7×5.5cm, 깊이 9cm의 네모난 사리(舍利) 구멍이 있었으나 내부의 유물은 이미 없어졌다고 한다. 2000년에도 지반침하로 인하여 석탑정밀 실측해체 및 보호를 실시하였다. 2002년 정확한 실측결과 석탑의 높이는 5.267m이고 사라진 상륜부의 높이까지 추산하면 7m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람의 노래가 들리는

鶴舞亭 학무정



매곡 오윤환(吳潤煥)선생이 1872년 제자들과 친척들의 협조를 얻어 지은 정자로 속초 8경 중 하나다. 학무정은 200년간 상도문동을 지켜온 소나무들 사이에 단아한 자태로 서있다.

매곡일기를 남기기도 한 오윤환(吳潤煥) 선생은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곤혹을 치르기도 했으며 단발령과 창씨개명을 강력하게 반대한 구한말의 선비다. 학문이 뛰어났으나 관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학무정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문인들과 소통하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매곡 선생은 이곳에서 선비들과 글을 짓고 시를 읊으며 제자들과 강

론하는 교육의 도장으로 삼았다. 정자 모양이 6각(六角)으로 되어 있어 옛날에는 육모정이라 부르기도 했다.

정자 4면에 이름을 적은 현판이 남아 있다. 남쪽에는 학무정, 북쪽에는 영모재(永慕齋), 북동쪽에는 인지당(仁智堂), 남서쪽에는 경의재(敬義齋)라고 쓴 것이 그것이다. 정자 안쪽으로 11개의 시가 적힌 판과 1개의 학무정기(鶴舞亭記)가 있으며, 천장 중앙에는 ‘용(龍)’자가 적혀 있다. 지난 2010년 속초문화원이 ‘장릉사진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일제 시대의 사진을 보면 학무정 정자 육면에 분합문(대청마루 앞으로 한 칸에 네 짝씩 드리는 긴 창살문)을 달았다. 이로써 학무정은 교육의 장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는 그 흔적이 하나도 남아 남아있지 않다. 다만, 여섯 곳에 모두 정자에 오를 수 있는 뗏돌에서 누구나 편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선생의 마음 한 자락을 읽어낼 수 있다.

정자 옆에는 1971년에 세운 학무정 기념비와 1955년에 세운 충효강릉 박공휘지의지비(忠孝江陵朴公諱志誼之碑)가 있다.

학무정의 운치를 더해주는 울창한 소나무 숲은 상도문리 마을의 공동 소유로 오윤환 선생의 후손인 오준택 씨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돌보고 있으며 숲의 병해충 방제는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가 담당하고 있다.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의 더위를 씻어주는 쌍천과 여러 사람이 모여 운동할 수 있는 넓은 터가 있어 피서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보아도 울창한 숲과 흐르는 물이 보였던 학무정은 둥근 장초석 위에 둥근 기둥을 올린 평범한 육각형이다. 그러나 주변의 노송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는 표현이 절로 나오는 곳이다.

고향을 갈망하는 마음

수 복 기 념 탑



수복탑이라는 이름보다 모자상이라는 별칭이 더 어울리는 탑이다. 전쟁기념비라기보다는 통일을 염원하고 실향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 만든 탑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속초 지역은 수복되었으나 남쪽으로 피난하였다가 북쪽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실향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실향민들의 한을 달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기원하기 위하여 피난민의 회사금, 속초읍 부담 육백만원, 군부대의 차량 지원으로 1954년 5월10일 건립하였다.

탑의 재원은 좌대 폭4m, 좌대 높이 7m 모자상동상 높이 2.55m 등

총 9.55m의 화강암 재질로 되어 있으며, 전쟁 유적비 탑의 상례인 군경 조각동상이 아닌 민간인 모자조각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 탑의 특징이다.

이 탑의 맨 위에는 보파리를 끼고 있는 어머니와 북녘하늘을 가리키는 어린 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고향땅을 바라보는 애절한 모자조각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더 이상 고향땅으로 올라 갈 수 없는 실향민의 한과 통일의 염원을 대변한다.

이 모자 조각상은 당시 1군단소속 군인인 박철성씨가 제작했으며, 애절한 사연을 담은 모자상부(母子像賦)는 당시 1군단 소속인 장호강 시인(한국참전시인협회장)이 지었다.

30년 가까이 그 자리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던 모자상은 1983년 4월 27일 새벽, 동해안에 불어 닥친 강풍으로 파손되었다. 실향민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부서진 것처럼 느껴졌다. 어부들도 귀항길이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수복기념탑의 파손에 대한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쏟아졌다.

이에 범시민적으로 수복기념탑복원건립위원회가 구성돼 시민성금 모금에 들어갔으며(시민성금 4천여만원과 시비 1천여만원) 결국 눈물어린 시민의 정성으로 인해 그해 11월 17일 수복기념탑은 다시 제막식을 갖게 됐다. 통일을 염원하는 속초시민 모두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기념탑에 새겨진 모자상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점점 높이 솟은 산봉우리 앞을 가리고 구비구비 험한 길 아득히 멀어도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오손도손 망향의 이야기 나누며 북녘고향 땅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 비바람 눈보라 휘몰아치고 어느 짙곳은 길손이 그 앞길 가로막는다 한들 두 생명 다하도록 낮도 밤도 없이 가야만 하느니.”

이제 수복기념탑은 속초시민의 통일 염원을 하나로 묶는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역대 고승들의 자취

신 흥 사 부 도 군



부도는 승려들의 사리탑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모여 있는 것을 부도군이라고 한다. 부도란 명칭은 불타(佛陀)에서 파생된 것으로 불도(佛圖), 부두(浮頭), 포도(浦圖) 등 여러 가지로 표기된다. 어원상으로 불타가 곧 부처이므로 불상과 불탑도 부도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도라고 하면 승려의 사리탑인 승탑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것은 수행이 높은 승려에게 불타와 같은 예우를 해주게 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중국 당나라로부터 선종이 들어온 9세기 이후 각 구산선문(九山禪門)에서 사자상승(師資相承)으로 법맥이 이어지면서 불상 숭배보다는 조사(祖師)들의 사리와 유골을 담은 묘탑이 중요한 예배대상

이 되어 많은 부도가 세워졌다.

문헌상으로는 <삼국유사>권4 원광서학조(圓光西學條)와 권5 혜현구정조(惠現求靜條)에, 7세기 전반 신라 진평왕 때 원광법사의 부도와 백제 혜현의 부도를 각각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어 늦어도 삼국시대말에는 부도가 건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유물로 가장 오래된 부도는 통일신라시대의 전(傳)홍법사염거화상탑(844)이며 이외에 대안사적인선사조륜청정탑(861)·쌍봉사철감선사탑(868)·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880)·실상사수철화상능가보월탑(893) 등이 유명하다.

일반적으로 부도는 석탑과 마찬가지로 기단부·탑신부·상륜부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기단과 탑신, 옥개석이 8각형으로 된 8각원당형(八角圓堂形)은 신라말과 고려초에 성행했던 전형적인 부도 형식으로 우리나라 부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옥개석은 목조건축물의 기왓골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기단이나 탑신부에는 불·보살을 비롯하여 신장상(神將像)·비천(飛天)·사자(獅子) 등이 새겨져 있다.

부도는 불가에서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라도 신앙의 중심은 될 수 없으므로 사찰의 경내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에 건립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신흥사 부도군은 조선 인조 22년(1644)에 신흥사가 중건된 이후 역대 고승들의 부도를 단일 장소에 조성한 것으로 원래 일주문을 지나 오른쪽에 있었는데 1996년 현 위치인 소공원 매표소 오른쪽 부지로 옮겨지게 되었다.

신흥사 부도군은 석종형 10기, 원당형이 9기로 총 19기와 비석 6기로 이뤄져 있다. 벽파선사, 용암선사, 대원선사, 월암선사 등과 같이 이름을 알 수 있는 부도 13기가 있으며, 나머지 6기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다. 6기의 비석은 벽파당 대선사비, 용암당 대선사비, 대원당 대선사비, 신흥사 사적기, 김수영 공적 기념비, 해암당 대선사비 등이다.

선인의 손길을 간직한

古宅 고택



산 속 깊이 있는 사찰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는 오래된 건물이 많지 않은 편이다. 수 없는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근대에는 3년 간의 전쟁이 있었으며 또 그 이후에는 급격한 산업화에 밀려 전통 가옥을 지킬 여력이 없었다. 오히려 ‘오래된 것은 불편한 것’이라는 인식이 더 강했던 것 같다.

이같은 역사를 거치면서도 아직까지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속초의 대표적인 고택이 김중우 가옥, 김근수 가옥, 오윤환 생가 등이다.

도문동 김중우 가옥은 1985년 1월 17일 강원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조선 영조 26년(1750)경, 전주 이씨가 건립 후 4대를 내려오던 중 같은 집안 이주환이 사들여 2대를 계승해 오다가 현 소유자 김중우(金宗友)의 선친 김시중이 사서 2대째 내려오고 있다.

평면은 안채와 행랑채로 구분되며 그밖에 창고 등의 부속건물이 딸려 있다. 집의 본채인 안채는 중앙의 마루를 중심으로 사랑방과 부엌이 있

고, 마루 뒤에 방 3칸을 두었으며 부엌 앞에는 외양간을 둔 산간지방의 전형적인 곽집양식으로 되어 있다.

도문동 김근수 가옥 역시 1985년 1월 17일에 강원도유형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확실한 건립 연도는 알 수 없으나 약 200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동안 함평 이씨가 살다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현재 소유자 김근수가 살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회령댁, 방앗간댁으로 불리고 있다. 지붕 위의 기와에 1825년에 해당하는 ‘도광 5년(道光五年)’이라고 새겨놓은 흔적이 남아 있어, 이 가옥은 적어도 180년 전에 기와를 얹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건륭(乾隆) 27년(1762)이라고 새겨진 수키와가 발견되어 연대를 추정할 수 있으나 기와는 다른 가옥의 것을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확실한 연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가옥은 곽집양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본채인 안채 중앙에 마루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사랑방과 부엌이 있다. 마루 뒤에는 방 3칸을 두었으며 부엌 앞에는 외양간을 두었다. 이는 대표적인 산간지방의 중앙 구들형 6칸 곽집양식 ‘ㄱ자’형 집이다.

도문동 매곡 오윤환 선생의 생가는 강원도문화재자료 제137호로 지정되어 있다. 오윤환 선생 생가는 19세기 전반에 지어진 전형적인 함평도식 ‘ㄱ자’형 곽집형식의 기와집으로 곽집형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전통가옥이라는 점에서 보존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가옥의 특징은 안방에는 할머니가, 윗방에는 시어머니가 거주하였고 윗방에는 뒷마루가 뒷 후원 쪽으로 나와 있어 잘 꾸며진 후원을 거닐게 하였다. 집 주위는 돌담이 둘러 있으며 장대석 기단에 20cm 각기둥을 세운 팔작기와 지붕 형태의 150~180년 정도된 가옥이다.

속초 앞바다를 지키는

속초 등 대



속초 등대는 1957년 6월, 처음 불을 밝혔다. 전쟁 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항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선박들이 빈번하게 드나들면서부터다. 2006년 신축된 등대는 높이 28m로 45초에 한 번씩 반짝이며 그 빛은 36km 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다. 등대의 등명기는 1953년 일본에서 제작된 것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렌즈의 직경은 1m에 달한다.

백원형 콘크리트 라멘조로 방형의 1층에는 전시실 및 동력실이 있고 2층의 원형등탑과는 내부에서 원형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1층 전시실 및 동력실의 외관은 모서리를 원형기둥모양으로 몰딩하였으며 상부는 평지붕의 끝을 2단으로 접어 외관의 볼륨을 강조하고 있다. 지상에서

높이 10m에 이르는 2층의 등탑은 상부로 갈수록 체감율이 높은 원형탑으로 등탑, 등룡, 등명기로 외관이 나뉘어져 있는데 등탑의 중간부에 철제 난간이 가설된 발코니를 가설하였고 그 상부는 2단으로 나뉘어 등명기 부분은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 지역 등대에 비해 건립연대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등명기를 중추를 이용하는 회전 방식을 택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등대로서 가치가 높은 편이다.

옥외전시실과 홍보관, 옥외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등대 입구에 독도등대, 소청도등대, 마라도등대, 대진등대가 소개되어 있다. 또한 등대 전경이 담긴 대형 유리판을 설치하여 사방에서 비추는 등대 빛을 한 곳에 모은다는 의미의 홍보물이 마련되어 있다. 2층 홍보관에는 강원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인등대 4곳(묵호, 주문진, 속초, 대진)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동해안의 항만을 소개하는 한국의 항만 소개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50년간 항해하는 선박의 길잡이가 된 옛 속초등대 모형을 재현해놓아 추억을 되살리게 한다.

등대와 사람들이라는 코너에는 등대 업무를 보는 사람과 방문객의 사진을 전시해 놓았으며, 중간 기둥에는 구 속초등대 야경 사진과 바다의 길잡이인 항로표지에 대한 소개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영상실에서는 항로표지와 설악산 영상물을 상영하여 항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해 주고 있다.

2006년 12월 개방되면서 관광객들에게는 등대보다는 전망대로써 알려져 있다. 등대 전망대는 속초 8경 중 하나이기도 한데 휴가철에는 한 달 평균 15,000명이 찾고 있다. 시원한 동해 바다와 설악산의 전경을 볼 수 있고 속초 시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가족들이 함께 찾는다면 시원한 풍경과 함께 등대에 대한 체험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해북부선의 기억

속 초 역



지금은 자취를 찾을 수 없는 동해북부선의 한 역이다. 동해북부선은 일제강점기 시절 양양의 철광석을 군사기지였던 원산으로 수송하기 위해 건설한 철도다. 일본은 1928년 한반도 동쪽의 남과 북을 잇는 동해 북부선 공사에 착수해 1년 뒤인 1929년 안변-흡곡 구간이 먼저 개통·운영되고, 1937년 12월 1일 간성-양양구간이 개통되어 양양에서 원산까지 철로를 이용해 갈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원산으로 가는 기차는 양양역을 출발하여 낙산↔물치↔속초↔대포↔천진↔문암↔공현진↔간성↔현내↔초구(통일전망대 바로 아래)↔고성·삼일포(이후 북한지역)↔외금강↔장전↔통천↔원산역(종착역)까지 연결되었고 29개의 역사(정차역 18개소, 간이역 9개소, 무인역사 2개

소)가 있었다고 한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군 군수물자 수송 등으로 이용되었으나, 또한 일부구간이 폭격으로 인해 유실되었고, 1953년 이후 양양-현내 구간이 다시 운영되다가 1963년 현내-간성구간이 폐지, 1965년 간성-속초구간이 폐지되고, 1967년 1월 1일, 철도청고시에 의해 속초-양양구간 및 전 구간이 폐지되었다고 한다. 이는 1953년 38선을 중심으로 북한과 남한의 군부대에서 조금씩 철로를 뜯어가면서 실질적인 운행이 불가능했었고, 해당연도에 서류상의 폐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영동선의 강릉에서 이 역까지 개통하려 했으나 국토 개발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무산되었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자’는 내용에 합의 2007년 남한의 제진에서 북한의 온정리까지 27.5km만 연결된 상태이다.

속초역사는 동명동 450-195번지에 1941년 프랑스식 꼬깔형 건축 구조로 세워졌다. 양양에서 하루 4번(05:00, 10:00, 16:00, 21:00)씩 원산으로 출발하였는데, 7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해방 이후 속초역사는 38선 이북지역에 속해 북한의 통제 하에 있었으며,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대규모 폭격으로 철로가 파괴되어 역사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으며, 국군이 북진할 때는 화장장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1951년 8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속초 지역에는 미군정이 실시되었는데 당시 속초역사는 미군항만사령부의 취사장과 댄스홀로 사용되었다. 그 후 1956년 4월에 명신고등공민학교가 입주하여 불우학생의 배움터가 되었다가 1957년부터는 벽돌공장인 고려산업사가 입주하였다.

동해북부선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속초역사는 1978년 4월 10일에 철거되었다. 2005년 속초시립박물관을 건립하면서 박물관 안에 역사를 복원하여 옛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새천년의 희망이 깃든

설악해맞이공원



속초8경으로 지정된 해변공원으로 해맞이 명소로 유명하다. 남쪽에서 속초로 들어오는 유일한 도로인 7번국도변 바닷가에 위치하여 속초의 첫인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곳은 대포항과 속초시내, 설악산소공원 가는 길이 갈리는 지점으로 예전에는 설악산입구라고 불렸다. 공원 남쪽으로 설악산에서 흘러내리는 쌍천을 사이에 두고 양양군 물치리와 마주하고 있다.

이곳의 옛 지명은 내물치(內勿淄)로 조선시대 우암 송시열 선생이 유배 중에 부른 이름이다. 우암은 함경도 덕원에서 다시 거제도도 유배되어 동해안을 따라 이곳을 지나다가 날이 저물어 머무르게 되었는데, 폭우로 물이 불어 발이 묶이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며칠 더 체류하다 떠나면서 '물에 잠긴 마을'이라고 했다 하여 '물치'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이곳 해안은 동해안의 다른 바닷가처럼 모래사장이나 해안절벽이

아니라 자갈과 돌로 이뤄져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넓이 2만 952㎡의 공원은 예전에는 잔디밭으로 있던 것을 1999년 9월 속초에서 개최된 국제관광엑스포에 맞춰 새롭게 단장했다. 앞으로는 동해를, 뒤로는 웅장한 설악산을 감상할 수 있는 가족공원으로 조각공원과 잼버리기념탑, 관광안내소, 야외공연장, 희망의 광장, 화합의 광장, 밀레니엄광장 등이 들어서 있으며, 소원로와 연인의 길, 사랑의 길 등이 조성되어 있다. 2007년에는 이북5도 위령탑도 들어섰다.

조각공원에는 속초 출신 조각가 박영근의 《바다에서》를 비롯하여 김영원의 《탄생-99 물에 오르다》, 최명룡의 《달맞이》등 30여 점의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다. 희망의 광장에는 1990년 고성군에서 열린 세계잼버리대회를 기념해 세운 잼버리기념탑이 자리 잡고 있다. 공원 동쪽 해안 바위 위에 ‘사랑이 이뤄지는 인어상’이라는 이름으로 돌고래와 함께 두 명의 연인 인어가 조각된 인어상이 세워져 있다. 공원 표지석 뒷면에는 속초 출신 황금찬 시인의 <설악의 아침>이라는 시가 새겨져 있고, 속초를 찾은 관광객들의 핸드프린팅도 도자기로 구워 벽면에 전시되어 있다.

2000년대 들어 설악해맞이공원 해안가에 설악항이 조성되었다. 2011년 방파제 끝에 스키점프대 모습을 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원 등대’가 설치되었으며, 지상 1층 연면적 467㎡ 규모의 수산물활어센터가 들어섰다. 2013년 현재 속초시에서는 이곳을 관광도시 속초의 랜드마크로 부각시키고자 설악산 상징 아치 조형물과 전망대, 인공폭포를 조성하고 있다.

공원 서편에는 조선 후기 이 마을에 거주한 학자 물재 유희일 선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1748년에 세운 물재 유선생 유희비(勿齋 兪先生 遺墟碑)와 속초항 개발에 공이 큰 박상희 초대 속초읍장의 송덕비 두 개가 함께 세워져 있다.

문화상징_2

역사



선사시대의 흔적

조양동 유적



기원전 8세기경인 청동기시대 전반기의 유적으로 1990년대 초반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조양동 지역은 낮은 구릉과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청초호를 접하고 있어 선사시대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376호(1992. 10. 10 지정)로 지정된 ‘속초 조양동 유적’은 속초시 지역이 우리나라 동북지방과 서북지방 그리고 남부지방을 이어주는 지역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온정리 남쪽 구릉(현재 사적 지정구역)에서는 장방형 집자리 7기가 조사되었고, 현 부영아파트 5단지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구릉에서는 고인돌 2기가 조사되었다.

집자리는 원래 지반인 풍화암반층을 40~60m 길이로 파내고 바닥에는 고운 진흙을 얇게 깔아 처리했는데 평면은 동서방향이 약간 긴 네모꼴로 23㎡~76㎡ 규모임이 밝혀져, 이 지역에 살던 선사시대 사람들은 7~23평 크기의 움집에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집자리 7기에서는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조각, 겹아가리무늬토기(二重口緣土器), 구멍무늬토기(孔列文土器), 골아가리무늬토기(口脣刻目文土器), 붉은간토기(紅陶), 굽손잡이그릇(豆形土器)과 다양한 종류의 석기(돌도끼, 돌검, 반달돌칼, 가락바퀴, 그물추, 화살촉)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고인돌 2기에서는 돌화살촉과 함께 1호 고인돌에서 남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완형의 부채꼴청동도끼(扇形銅斧)가 출토되었다.

특히 부채꼴청동도끼는 중국 요동과 평안도 미송리, 함경도 토성리 출토품이 알려져 있어 이들 지역과의 문화교류상을 확인할 수 있다. 3호 집자리에서 출토된 ‘굽손잡이 그릇’은 남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동북지방의 신석기시대 말기 유적인 함경북도 무산 호곡동에서도 출토되어 신석기시대 말과 청동기시대 초기에 동북지방과 강원 영동지역간의 문화교류를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사람의 이동이 지금보다 제약적인 선사시대에 양 지역의 특징을 지닌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인적 물적 자원이 이동하기에 용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완형의 청동도끼 및 청동기 문화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굽손잡이 그릇 등 특색 있는 유물과 돌화살촉, 반달돌칼 등 생활유물을 만들어 판매하면 청동기문화의 이해와 속초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시티투어버스의 경우를 통하여 지역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조양동유적 인근에 작은 전시관과 주차장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교육과 관광객이 머무르면서 지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농촌마을

道門洞



속초시는 설악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세 하천에 의해 3분되어진다. 가장 북쪽에 있는 장천천이 영랑호로, 중간의 청초천이 청초호로, 제일 남쪽에 있는 쌍천이 동해로 유입된다. 이 중 도문동의 경제적, 문화적 근원을 이루는 것이 쌍천이다. 도문동을 사이에 두고 좌우로 있는 설악동이 설악산의 산간문화, 대포동이 동해의 어촌문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 도문동은 쌍천을 수원으로 하여 농경지가 발달한 농경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쌍천은 동해로 흘러내리는데 양양군의 강현면과 도문동 지역에 넓은 농경지를 만들어 놓았다. 지형적 조건은 한 지역의 중요한 문화기반이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

문에 지역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 지형적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도문(道門)’이라는 지명은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도중 이 곳에서 도통의 문이 열렸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 양양 강현면 강선리에서 내려온 신선이 이곳에서 길을 물어 유래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내려오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수도객들이 도를 닦기 위해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 하여 도문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도문동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촌 마을로서 지금도 전통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마을이다. 쌍천을 중심으로 넓은 농경지가 분포하는 가운데 농경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설악산이 동해로 흐르면서 만든 청대산 줄기가 남으로 뻗치면서 자연스럽게 상·중·하도문의 3개의 마을로 나뉘고 있다.

도문동은 생활권이 크게 3권역으로 나뉜다. 설악동과 인접한 상도문에서 동해 쪽으로 내려오며 중도문, 하도문 마을이 넓은 들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를 배경으로 곳곳에 그 자취가 남아 있는데 유형적 자산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의 주거는 현대화되었지만, 상도문의 매곡 오윤환 선생 생가(강원도문화재자료 137호), 중도문의 김종우 가옥(강원도 유형문화재 85호), 하도문의 김근수 가옥(강원도문화재자료 64호) 등이며, 무형적 자산으로는 도문농요(강원도무형문화재 20호)가 전통문화의 흐름을 아직도 면면히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문동은 지명 유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과 농업에 기반을 둔 농요가 있으므로 한옥활용 민박사업, 친환경농산물과 도시민과의 연계사업 등 설악산과 연계한 농촌 체험형 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바다를 품은 성당

동명동성당



동명동 성당은 1952년 10월 5일 양양 본당에서 분리되면서 시공해 1953년 8월 15일에 완공되었다. 1951년 당시 속초 지역으로 이주해 온 난민의 수는 1만 명이 넘었지만 신자의 수는 26명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구장 직무 대리 웨이워드 신부는 당시 속초리에 성당을 세우기로 하고 1952년 9월 원 파트리치오 신부를 비롯해 두 명이 신부를 김근식 속초읍장에게 보내 성당 부지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도록 했다. 당시 군정 포고령에 따라 일체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고 전후 복구를 위한 토지의 관리는 전적으로 읍장의 권한이었다. 김근식 읍장의 협조로 현재의 자리에 성당을 건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휴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에 맺어졌으므로 전시에 지어진 건물이

라고 봐도 될 것이다. 성당부지 평토작업과 건축에 필요한 중요한 자재는 미군의 도움을 받고 외벽을 쌓는 데 필요한 돌은 영금정 채석장에서 구입하였다. 건물 기초 작업을 할 철근이 없어서 미군들이 동해 북부선 철로를 철거하여 온 것을 사용하였고 성당 지붕은 미군수송부대에서 가져온 드림통을 펼쳐서 사용하였다.

동명동 성당은 휴전 협정에 임박해 맥고완 신부가 부임하면서 고성군과 속초시 전역을 관할하는 본당으로 설정되었다. 건립을 시작할 당시 26명이던 신자는 현재 500여 명으로 불어나 있다.

동명동 성당은 단층 석조 건물로 장방향 평면에 정면과 배면의 우주 부분은 안솔림이 강하게 표현되었으며 상부는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다. 출입구 상부 중앙에 첨탑을 올려 십자가를 받치고 있다. 첨탑의 상부는 건립 당시와는 달리 모입지붕의 높이를 더 올린 콘크리트 구조물로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수직성이 강조되었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천장 덮개는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다.

건물 외곽의 회칠을 한 벽면은 서양 건물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인데, 석재 가운데 부분을 거칠게 처리함으로써 유럽풍의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건물 내부는 안 쪽에 세우는 기둥이 없어 확 트인 모습을 보인다. 제단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성가대석 및 유아실 및 제의실이 배치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건물 모퉁이 기둥 부분의 높이와 기울기 조절을 잘하여 건물 전체를 안정적으로 보이게 했다.

동명동 성당이 자리한 곳은 전망이 좋아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다. 단란한 정원, 아담한 성당은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관광 필수 코스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2010년에는 SBS드라마 ‘자이언트’가 촬영되었던 장소로 유명해지기도 했다.

실향의 그리움이 만든 마을

바 바 비 마 을



설악산, 영랑호, 영금정 등이 속초의 자연을 대표하는 상징이라면 아바이마을은 속초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속초를 실향민의 도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한국전쟁 당시 고향을 잃어버린 이북도민 실향민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속초가 있기까지 이북도민 실향민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기도하다.

전쟁을 피해서 혹은 자유를 찾아서 짧으면 15일, 길어야 3개월이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고 남쪽으로 피난 내려왔으나, 60년이 지난 지금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속초에 정착해서 살았고, 지금은 한 많은 생을 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쟁 당시 수복된 속초지역은 1951년 8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미군정이 실시되었는데, 군정은 속초지역의 피난민 정착을 위한 주택건설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재산과 토지 등 경제적인 기반이 없었던 피

난민들은, 현재 청호동 1·2·3동 지역을 중심으로 좁은 공간에 움집이나 판자집 등을 짓고 신포마을·앵꼬치마을·짜꼬치마을·단천마을 등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거주하는 집단취락을 형성하게 되었다.

매입할 수 없었던 청호동의 국유지가 피난민 정착지로 제공되면서 땅에 대한 개인적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없이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였고, 신향민 자신들만의 생활 거주공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좁은 가로를 형성하고, 담장이 없이 공동의 서비스 공간(화장실 등)을 가지는 독특한 청호동 거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청호동에 정착한 피난민의 약 90%이상은 함경남도에 고향을 둔 신향민들로서 함경도 지방의 사투리로 할아버지 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 아바이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하여 아바이마을이라 불리게 되었다.

위와 같이 속초를 상징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할 수 있는 북한문화와 속초토착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신향민 문화가 보존·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민족 현대사의 가장 아픈 기억인 한국전쟁(예전에는 6·25사변이라 하였음)을 상징할 수 있는 신향민의 정착촌 일명 아바이마을은 속초라는 도시를 달리 부를 수 있는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가장 많은 신향민들이 거주하는 피난민 정착촌으로서 아바이마을은 정치학·사회학의 다양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는 분단현실과 통일의 염원을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소이다.

또한 함경도 지방의 방언과 음식·주거생활 등 민속문화 연구는 물론, 속초의 토착문화와 경쟁 또는 융합하면서 형성된 독특한 생활민속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향민음식으로 대표되는 함흥냉면·아바이순대·각종 식혜 등은 피난민 정착촌 아바이마을의 도시관광과 함께 독특한 음식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속초문화의 집대성

속초시립박물관



속초는 산악·어촌·실향민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독특한 문화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속초는 자연관광지로서의 명성은 널리 퍼져 있으나 문화체험지로서의 입지는 미약한 편이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속초지역의 역사·민속자료의 수집·조사를 통해 속초의 역사와 민속문화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5년 11월 4일 개관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크게 3개 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 그리고 발해역사관이다.

실향민문화촌에는 이북5도의 가옥이 전시되어 있다. 북한지역별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가옥을 재현한 개성집·평양집·평안도 쌍채집·함경도집·황해도집이 있는데, 이 가옥들은 북한지역의 민속문화와 함께 숙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다. 그리고 이북5도가옥 뒤쪽으로는 일명 하꼬방이라 불리는 판자집 피난민가옥과 속초역이 재현되어 있으며, 매일 오전·오후 속초시립풍물단의 공연 또한 실향민문화촌 놀이마당에서 관람할 수 있다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 5,048m²으로 전시동과 관리동 그리고 전망탑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제2전시실, 기증유물실, 기획전시실, 강당과 카페테리아가 있으며, 2층은 제1전시실과 관리사무실, 3층은 학예연구실과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다. 전망탑은 5층 높이로 설악산과 함께 동해바다와 속초시를 전망할 수 있다. 제1전시실에는 속초 역사와 민속을 개관할 수 있고 심메마니, 신흥사 불교유물, 속초의 주요 인물을 볼 수 있으며, 제2전시실에는 어로도구와 고기잡이 방법과 같은 어촌문화와 갯배모형과 신흥민음식 등 신흥민의 민속과 문화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증유물실에는 매곡 오윤환 선생의 유품인 매곡일기, 학정건축일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2009년에 개관한 발해역사관은 우리나라 고대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발해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해동성국 발해전시관과 정효공주 고분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해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박물관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설전시와 함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설날, 한가위 등 세시풍속행사와 어린이날 행사, 피난살이·신흥민문화 체험행사, 초등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토요 방과후 학교·국악 전수교육과 토요 어린이 아뜰리에 등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속초 향토문화의 보존과 홍보 그리고 문화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박물관은 향토사 교육의 장은 물론, 이북도민 정착과정 기록보존사업과 같은 신흥민문화의 보존과 전승의 중심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 학교와 사회를 위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기반시설로 활용될 것이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속초문화의 구심체뿐만 아니라 속초문화관광자원의 홍보와 문화체험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고려의 흔적을 발견하다

동명동
속초성기



2012년 7월 재해방지공사를 하던 중에 발견된 고려 중기(12세기)의 성터다. 유물발견 신고가 문화재청에 접수되어 전문가 입회 공사 중 석렬이 발견되어 긴급 발굴조사를 8월 29일~9월 13일까지 실시하게 되었다.

유물이 발견되기 전, 일제강점기시절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1942년 발간, 이하 조사자료』에서도 이 성터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 조사자료에는 ‘속초리 부락의 서쪽 방향으로 근접한 작은 언덕 위에 있다. 주위 약 삼백 칸이며, 흙으로 쌓았다. 거의 완전하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조사자료』에서 기술한 지

역은 현재의 속초시 동명동 365-15번지 일원(일명 단천마을)으로 수복탑 3거리 오성식당 뒤쪽 산기슭에서 시작하여 속초감리교회~속초지원과 속초검찰청을 휘돌아 KBS 속초방송국과 구 속초성결교회(지금의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까지 연결되는 해발 20~40미터 정도의 구릉으로 둘러싸인 해안가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바다가 인접한 동쪽으로 해발 20~30여m 정도의 자연스러운 언덕이 고대 성벽에 기어오르는 적을 쓰기 위하여 성벽 밖으로 내밀어 쌓아 놓았던 돌출부인 치(雉)로 추정되는 부분이 형성되어 있다.

치로 추정되는 구릉지에서는 천경3년(天慶三年), 계사사월일(癸巳四月日), 양개□(良玠□), 관사(官舍), 변관(邊官), 연관(沿官)등의 명문기와와 연화문, 어골문, 사격자문, 연화문+어골문, 사격자문+어골문의 복합문양의 기와 등이 발견되었고, 흙으로 판축(판자와 판자 사이에 흙을 넣고 공이로 다지는 건축 방법)한 흔적과 석렬(石列)이 발견되었으며. 지금도 성을 쌓기 위해 쓰였던 많은 할석들이 마을주위에 산재(散在)해 있는 상태이며, 우물터도 1곳이 있었다.

2012년 9월 13일에 실시된 전문가 검토회의에서는 석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극소량이지만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어 청동기시대 유구가 잔존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영정주흔이 한 부분에 집중된 점에서 보루 등의 큰 건물이 있었음을 짐작하고, 치(雉)로 추정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가장자리 쪽으로 큰 기둥자리를 두고, 판축을 하였다는 목책토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같은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기록된 존재 가능성을 실제적으로 일부 확인하여 향후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성곽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장천마을



5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마을로 동해안 일대 지형에서는 보기 드물게 지대가 낮은 분지형이다. 관광도시화가 추진되고 있는 속초시의 다른 농촌지역과 달리 여전히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간직한 마을이다. 마을의 앞뒤로 방축곶천과 장천천이 흘러 땅이 기름지고 창천천이 영랑호로 유입되어 바다와 만난다. 마을의 시초는 500여 년 전 함중 어씨가 정착하면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영월 엄씨 진사공파, 함중 어씨 부장공파, 교수공파, 진사공파과, 제주 고씨 장흥백파의 성씨들이 모여 살고 있다.

40여 년 전만 해도 고성군에 속했지만, 1973년에 사진리(沙津里, 현. 장사동)와 함께 속초시에 편입되었다. 1904년 작성된 간성군 ‘광무양안(光武量案)’의 호구대장에는 장천리에 44호(戶, 1호 기준 약 4명으로 환

산할 때 176명 정도 거주)가 있어, 당시 간성군에서는 비교적 큰 동네였음을 알 수 있다.

장천마을은 처음에는 큰 바위가 있는 곳에 살았다고 해서 ‘대암동’이라고 불리다가 마을이 일곱 골짜기에 둘러 싸여 있어 ‘칠둔’이라고도 불렸다. 그 이후에 고성군 원암리로 넘어가는 노루목 고개에 있고 마을 앞 개천이 노루목에서 시작된다고 해서 ‘노루 장(獐)’자를 써서 장천리(獐川里)로 부르게 되었다.

400년을 이어온 이름은 조선시대 이 마을의 엄씨 가문에서 진사에 합격한 사람이 나오면서 바뀌게 되었다. 진사를 배출한 마을의 이름에 ‘노루’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여 소리는 같되 뜻은 다른 ‘글장(章)’자를 써 장천리(章川里)로 바뀌었다.

장천리에는 ‘덤바위재(일명 ‘넘바위재’)라는 고개가 있었는데, 옛날 장천리 사람들이 이 고갯길을 이용하여 속초 장날(조선총독부 자료에 의하면 속초리에는 3, 8일 장이 섰다고 한다)이면 나무지게를 등에 지고 이 고개를 넘어 다녔고, 봄철이 오면 아낙네들은 땀나물을 뜬어 역시 속초시장을 찾아 이 고개를 넘어 다녔다고 한다(출처 : 『내 고향 속초』, 김정우)

마을 뒷산에는 두 개의 우물이 있는데 음양수라 불린다. 물이 맑은 우물은 여자샘, 뿌연 물이 있는 우물은 남자샘이라고 한다. 음과 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 지은 이름일 것이다.

장천마을은 예로부터 인심이 후하기로도 유명하다. 전설에 따르면 흥년이 9년이나 이어지던 해에 한 거지가 부잣집을 지나다 떡 치는 것을 보고 그 위에 엎드려 버렸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본 부자는 사돈집에 보낼 떡을 모두 거지에게 주고 새로 떡을 만들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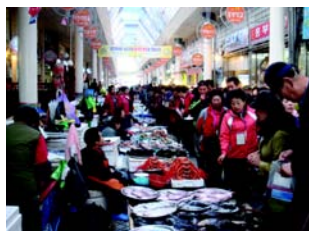
설악의 아름다운 산과 호수 바다로 연결되는 장천마을은 속초지역 주민들의 고향이자 속초를 찾은 여행객들의 휴식처이기도 하다.

사회와 생활



동해안 별미여행

속초관광수산시장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한 번은 들르는 곳이다. 속초관광수산시장은 30년 이상 속초의 모든 품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속초의 역사와 함께 한 시장이다. 전국적으로 닭강정이 유명하며 호떡, 지하 횃집, 건어물, 어물전 등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성업 중이다. 특히 인근 양양과 고성 농촌에서 아낙들이 직접 수확한 농산물과 먹을거리를 팔러오기 때문에 설악권의 모든 농산물을 이곳에서 살펴보고 살 수 있다. 아울러 쇼핑과 함께 지역특산물 먹을거리로 쉽게 요기할 수 있는 곳도 이곳이다. 어물전에선 이색적인 북한 사투리를 쓰는 함경도 아마이들의 역센 삶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 문화관광의 명소라고 할 수 있다.

속초관광수산시장의 옛 이름은 속초중앙시장이다. 한국전쟁 직후 속초가 수복된 후 형성된 유서 깊은 시장이다. 원래 1군단과 미군부대가

주둔해있던 영랑시장이 활성화돼 있었지만 부대이동과 수협어판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 남하현상(주민들이 중앙동·동명동·금호동·청학동에 밀집함)으로 자연스레 이곳 중앙시장이 형성됐다. 예부터 중앙시장 터는 용소(龍沼)골로 칭하던 곳으로 1군단 공병단 지원으로 논과 웅덩이를 메우고 상인들 부담으로 총 8백여만 원을 들여 속초3구시장 목조건물이 지난 1953년 11월5일 준공됐다. 당시 점포수는 263개였다.

어시장이 그 한복판에 당당히 자리했고, 극장을 비롯해 간장공장이나 방앗간 따위가 그 한편에, 또 다른 한편엔 문구점이나 잡화 가게 따위가 늘어서 있었다. 순대국집도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었고, 귀퉁이 한 골목엔 떡장사 아주머니들도 있었다. 참빗장수, 이약과 고무줄 할아버지, 소리사 집 아저씨, 솜틀집 할머니, 리어카꾼, 닭집들, 포목점 골목, 만화가게, 의류점, 신발점 등이 자리했다. 문제는 화장실이 많지 않아 공중변소를 시장 밖에 만들 수밖에 없었다. 1963년 1월1일자로 속초가 시로 승격돼 지난 1966년 동제(洞制)가 실시됐다. 이에 따라 시장이름도 3구 시장에서 중앙시장으로 바뀌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 6차례의 화재와 수해를 입었고 지난 1975년에는 중앙가로 개설공사로 중앙시장 일부 건물들이 철거되는 운명을 맞기도 했다. 그 후 중앙시장은 전국의 건어물 메카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도매시장의 전국화가 시작된 셈이다. 더불어 설악산 관광활성화에 힘입어 명태와 오징어 건어물의 주산지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된다. 현재는 지난 2006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시작된 이래 속초관광수산물시장으로 바뀌면서 캐노피 설치, 상인교육, 주차장 확보 등으로 성공을 거뒀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11월엔 ‘여행하기 좋은 전통시장 10선’에 선정돼 동해안에서 대표적인 관광수산물시장으로 도약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명 태



70년대 명태 성어기인 한겨울에 속초항으로 배가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들은 함지를 이고 기다렸다. 어부들이 건네주는 낚시를 담아 집으로 돌아가 엉클어진 낚싯줄을 풀어 쪽빋대에 물린 다음 쪽빋대에서 뺀 낚시에 소금에 절인 양미리 미끼를 꿰어(밧갓 찍는다고 한다.) 빈 함지에 차곡차곡 쌓는다. 잘 정돈된 함지를 출어 전에 명태밭이 배에 운송하면 품삯을 받았다.

어머니뿐 아니라 온가족들은 남의 집 명태낚시 찍기로 연명을 하면서 그 춥고 긴 겨울을 이겨내며 살아왔다. 라디오 드라마 ‘법창야화’를 들으며 밤늦도록 명태낚시를 찍는 어머니와 전기 없는 촛불 아래서 가족들은 어머니의 힘든 노동을 덜어주기 위해 빵떡(명태 낚싯줄 꼬임 뭉치)을 가리곤 했다. 명태밭이 배마다 ‘물지게’라 부르는 여자가 꼭 동승했다. ‘물지게’는 배에서 필요한 빨감과 식수를 책임졌다. 낚시함지를 포개서 머리 위에 얹고 그 위에 빨감을 실은 후 반합과 수고비로 받은 생

태를 짚어지고 집으로 향한다. 반합에 숟가락이 꽂힌 모습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50대 이상의 묘한 향수를 자극한다. 이 당시 덕장에서 아낙네들이 품팔이로 명태때기기를 했는데, 명태알은 주인에게, 아가미와 내장은 명태때긴 사람 몫이었다. 아낙네들은 집에 가져온 아가미와 내장을 밤새 손질해 아침에 돈 주고 수거해가는 상인에게 넘겨줬다. 덕장에서 마른 명태 관태(貫太)작업이 진행됐는데, 이 때 동네 아낙네와 아이들이 꼬챙이로 명태눈알을 빼다 팔았고 동절기 긴긴밤 집집마다 간식거리가 되기도 했다.

명태는 별명이 많다. 그물로 잡으면 그물태, 낚시로 잡으면 낚시태, 잡히는 시기에 따라 겨울엔 동태, 봄엔 춘태, 동지바지, 설달바지, 일태, 이태, 삼태, 사태, 오태, 도루묵 떼를 쫓아 온 놈은 은어바지, 산란 뒤는 꺾태, 마지막 잡히는 것은 막물태, 어린 명태는 왜태, 애태, 애기태, 노가리, 앵치, 말려놓으면 건태, 더덕북어, 황태, 코다리, 얼치, 북쪽에서 온 물고기라고 북어, 팔팔하다고 생태, 앞바다산은 지방태, 오호츠크 베링해 산은 원양태.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게 없는 것도 명태다. 알은 명란젓, 창자는 창란젓, 아가미는 서거리젓이 되고, 애나 곤지 맛도 빼놓을 수 없다.

임하필기에 명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무태어(無泰魚), 난호어목지에도 명태어라고 했으니 민족물고기인 셈이다. 현대적 의미로는 완벽한 강장, 다이어트 식품이다. 지방함량이 매우 낮고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체액·혈액을 중성으로 유지하게 하며, 질 좋은 비타민A와 나이아신, 레티놀은 고운피부와 주름방지에 탁월하다는 것이다. 사실 해독작용이 탁월해 뱀에 물렸을 때나 연탄가스 중독에 명태국물을 먹이는 민간요법이 내려오고 있으며, 애는 시력보호, 토코페롤이 많이 들어있는 알은 노화방지, 아가미는 골다공증 예방 등 영양학적 분석도 나와 있다.

곰삭은 손맛

젓갈



젓갈은 『세종실록』에 명나라 사신에게 올렸다는 기록이 나올 만큼 예로부터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았다. 속초의 대표적인 젓갈은 명란과 창란, 오징어젓갈인데 지금은 명태가 대부분 러시아에서 수입된 것이지만, 60~70년대 속초는 명태의 주산지로 각광을 받았다. 그 당시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명태를 때기는 아녀자들이 어판장과 항구를 가득 메웠다. 아녀자들은 생태의 알, 창자, 아가미를 떼어내 싸리나무에 꿰는 품삯으로 창자와 아가미를 받았다. 그리고는 창자와 아가미로 젓갈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거나 전문수거꾼에게 팔아 생계를 이었다.

젓갈전문기업이 이런 아낙네들의 손길을 기초로 생겼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명란과 창란은 모두 반찬용 젓갈로 장기간 보존할 수 있어야 하며, 밥맛에 맞도록 짜고 맵게 만든 것이 많다. 반찬용 젓갈은 발효·숙성기간이 길다. 소량의 젓갈로 많은 양의 밥을 먹으면서 생기는

영양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젓갈의 염분을 낮추고 여러 종류의 다른 반찬을 많이 먹어야만 한다는 식생활개선의 계몽이 1940~1950년대에 있었으며 그 결과 젓갈의 저염화 경향이 생겨났다고 한다.

명란젓은 명태의 알집을 염장, 발효해 만든 젓갈이다. 속초지역은 명태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이 발달했다. 그중 명란젓은 짠맛, 구수한 맛과 연분홍 살색이 특징이다. 명란젓은 여러 가지 양념으로 조미해서 밥반찬으로 먹는다. 요즘은 저염도(8%)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

창란젓은 명태의 창자 부위를 염장하여 발효시킨 젓갈이다. 아가미로는 아가미젓을, 창자는 창자젓을 담근다. 창란젓을 담글 때 생태 창자만으로 담그는 것이 질이 좋은 젓갈이 된다. 오징어젓갈은 오징어를 소금에 절였다가 고춧가루, 마늘, 생강, 물엿으로 무친 것으로 밑반찬에 좋다.

속초의 명란과 창란, 오징어젓갈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함경도 식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직후 피난 온 함경도 사람들이 청호동에 정착하면서 생계를 잇는 주된 방법이 고기잡이와 덕장, 함경도식 먹을거리 판매였다. 고향 함경도에서 익힌 손맛을 싱싱한 속초의 원재료에 가미하다보니 다른 지역의 젓갈에 비해 특유의 맛을 지니게 됐다.

이젠 젓갈도 함경도식과 강원도식이 혼재돼 실향민들이 고향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애착의 정도와 인지의 문제에 불과하며 실제 2세대인 며느리와 손자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피난민 가족 중에서는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속초시는 젓갈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산업화하고 있으며 대포농공단지에 동해안젓갈컴플렉스센터를 개관해 젓갈산업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실향민의 밥도둑

식 해



밥도둑이라고 했다.

우리 속초에서 젓갈과 식해는 식단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젓갈에 무채,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등 양념을 버무린 다음 조밥을 섞어 삭히면 식해가 된다. 식해의 한자어 중 해(醃)가 젓갈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식해는 젓갈의 일종으로 여기고 있다. 식(食)이라는 낱말이 밥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식해는 밥을 넣은 젓갈을 뜻한다. 조선 궁중요리 전승자이면서 여러 지역의 지방요리를 조사하는 데도 중사한 경험이 있는 황혜성은 식해를 「한번 소금에 절여 물기를 짜낸 생선토막을 조밥이나 쌀밥과 엿기름, 고춧가루와 함께 버무려서 절임을 해 발효 숙성시킨 것이다. 동해안 지역인 함경도, 강원도에서 많이 만든다」고 정의했다.

식해는 발효숙성기간이 짧아 절인 후 며칠 안에 먹을 수 있다. 식해

의 종류로는 가자미식해, 명태식해, 도루묵식해 등이 있다. 가자미식해는 주로 겨울철에 만드는데 함경도 가자미식해는 조와 엿기름, 소금, 가자미, 무, 생강, 고추, 마늘을 넣었다. 또 함경도 도루묵식해에는 멧쌀과 엿기름, 소금, 도루묵, 생강, 고추, 마늘이 섞인다. 이외에도 청호동에서는 횡대기식해를 많이 담가 먹었는데 가시가 많았다고 한다. 소금국을 젓물 또는 지리국이라고 하는데 횡대기 지리를 이북사람들이 명절이나 마을잔치에 많이 해먹었다고 한다. 깍두기에 서거리를 넣어 삭혀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었다.

식해는 아니지만 겨울 김장철 김치 속에 명태와 아가미, 서거리(아가미뿔개)를 넣어먹는 함경도식 김치도 별미다. 폭설이 내린 어느 날 김장독에서 꺼낸 김치에서 묻어나오는 그 속들이 삭아서 내뿜는 청량한 맛이란 먹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오묘한 맛이다.

식해를 주로 만들어 먹는 지역은 동해안의 함경도와 강원도다. 추운 지역인 함경도는 전통적으로 벼농사가 발달하지 못했고 태백산맥이 바다 가까이 있는 강원도 동해안은 논농사에 적합한 토지가 적어 밭농사로 잡곡을 짓는 지대가 많다. 동해안은 원료를 입수하는 문제 때문에 식해를 곧잘 만든 지역이었을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속초가 국내의 대표적 가자미식해 생산지가 된 것도 많은 함경도 피난민이 속초에 정착한 후 고향의 맛을 잊지 못해 한 집 두 집 담가 먹기 시작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이렇듯 벼농사가 되지 않는 이들 지역에서는 벼 이외에 발작물인 조를 사용한 식해가 자연스레 발달했을 것이다. 조에는 차조와 메조가 있는데 차조는 메조보다 열매가 작고 빛깔이 훨씬 누르며 찰기가 있고 메조는 알이 굵고 노르며 찰기가 적다.

근현대사의 아픔을 싣고

갯 배



갯배는 중앙동과 청호동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인데 지금 갯배가 다니는 길은 과거에는 가랑이 끝만 약간 걸어 올리면 건너다닐 수 있었다. 부영아파트 앞을 지나는 ‘신작로’가 생기기 전에는 중앙동과 청호동을 바로 잇는 이 길이 7번국도, 즉 속초의 주도로였다. 그런데 석호였던 청초호를 항구로 개발하기 위해 모래톱을 파내고 수로를 내면서 이 길이 끊긴 것이다. 그래서 청호동 주민들은 중앙동을 불과 50m 앞에 두고 5km를 돌아가야 했다.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속초읍에서 갯배 1척을 만들어 도선에 이용했는데, 당시 갯배는 트럭 1대와 우마차 1~2대를 같이 실을 정도의 크기였다.

해방 이후, 속초가 북한의 통치를 받았을 때 갯배는 사라졌다. 저마다 재주껏 거룻배를 이용해 건너거나 빙빙 돌아서 시내로 나와야 했다. 그러다가 전쟁 이후 난민들이 청초호를 둘러싸고 있는 청호동의 모래톱에 정착하게 되면서 갯배는 다시 그 쓰임을 찾는다. 이때 소위 조막손 영감(김영학, 金永學)이라고 불린 이가 주업으로 했는데 물론 자기 소유의 거룻배를 이용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피난촌 청호동민들의 불편은 여간 아니었다. 특히 자전거나 손수레의 이용은 더 어려웠다. 그 후 민정이 되면서 1955년 초 속초읍에서 지금 모양의 갯배 1척을 만들어 5구(=청호동)에 관리를 맡겼다. 1961년 1척을 더 만들었고(칠성조선소 제작), 정식 도선업 허가를 받아 재향군인회 속초지회가 위탁 운영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형태의 갯배가 등장한 것이다. 이 배는 이후 청호동과 중앙동을 잇는 ‘움직이는 다리’이자, 청호동 마을 전체의 대문역할을 담당했다.

갯배가 있다고는 해도 청호동 사람들의 생활은 제약되기 일쑤였다. 수해가 나거나 해일이 일어 청초호 물이 불면 갯배의 운항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청호동 사람들의 생계도 큰 타격을 받았다. 극심한 생활 불편은 두말할 것도 없다. 중앙시장을 오가며 생선장수를 하는 아낙의 발도 묶이고 아이들의 등학교도 멀리 조양동을 돌아가야 했다. 지난 1988년 갯배는 청호동개발위원회에 운영권이 넘어갔고 지난 1998년엔 낡은 목선을 버리고 4천만 원을 들여 현재의 35인승 FRP선으로 바뀌었다.

갯배와 갯배나루는 TV드라마 ‘가을동화’와 TV오락프로그램 ‘1박2일’로 다시금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건어물가게와 횡집, 생선구이집, 오징어순대집 등이 들어서며 일약 관광 변화가로 도약한 것이다. 관광객들에게 갯배와 갯배나루 인근의 식당 등은 연예인들이 먹었던 곳으로만 인식된다.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아바이마을에 아프게 스며드는 한국 근현대사의 단면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젠 구수로 교량(금강대교)과 신수로 교량(설악대교)이 연결돼 갯배를 이용하지 않고도 시내와 교통할 수 있게 됐지만 청호동과 갯배와 갯배나루는 잃어버린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길목이었기에 관광객이 붐비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곳을 ‘실향1번지’라 부른다.

상처 입은 학의 날개를 고친

척산온천



척산온천은 속초시 노학동 척산마을에 위치한 온천지구로 설악워터피아와 함께 속초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다. 산과 바다, 호수, 온천을 속초의 4대 관광자원이라 하는데, 척산온천은 바로 이 온천 자원을 대표한다. 강원도에서 양양 오색온천과 함께 가장 먼저 개발된 온천이기도 하다.

예부터 척산마을에는 온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왔다. 온천수가 자연히 솟아나 그 주변에는 겨울에도 초목이 파랗게 자랐으며, 부락아낙네들의 빨래터로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이곳에서 날개를 다친 학이 땅속에서 올라오는 더운 김을 썬고 치료되어 날아갔으며, 눈 덮인 겨울에 빨간 뱀 한 쌍이 목욕을 하였다는 전설도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땅속에서 저절로 뜨거운 물이 솟아올랐으며, 1943년 일본인들이 온천공을 확보했으나 폐망 후 막아버려 찾지 못했다고 한다. 온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에도 따뜻한 물이 솟아나와 인근 주민들이 상처를 비롯한 피부질환이 생기면 이곳을 찾아 효험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러나 이 지역이 온천으로 이용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1940년 경에도 온수가 자연 분출되었으나 그 양이 적어 그대로 방치되었다.

본격적인 개발은 국립지질연구소에서 이 지역에 온천부존 가능성을 확인하고 1965년부터 시굴하여 1969년 12월 30일 지하 250m 지점에서 44.8℃의 알칼리성 온천수를 개발하는데 성공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1973년 12월에 지하 360m지점에서 47℃의 온천수를 분출시켰고 이어서 1975년 5월 온천 확장 공사 때 다시 452m에서 수온 53℃의 온천수를 분출시켰다. 그 후 온천공을 추가로 개발하여 현재 1일 용출량이 3천 톤 이상에 이르고 있다.

1970년대에 온천공이 시추된 후 계획적인 온천개발을 위해 1978년 설악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온천법이 시행된 1981년 척산온천지구(법개정으로 현재는 척산온천원보호지구라 함.)로 지정되었다. 2003년 8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었다.

온천이 개발된 초창기인 1971년에 33㎡ 남짓한 작은 목욕탕이 처음으로 들어섰으며, 1980년대까지 척산온천장, 설악온천장, 척산온천휴양촌 3개 업체의 온천장이 들어섰다. 2000년대 들어서 설악온천장은 척산온천휴양촌으로 흡수되어 현재는 두 개의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 5월 척산마을에는 야외족욕체험시설과 온천홍보관, 특산물판매장, 주차장 등이 조성된 척산족욕공원이 들어섰다. 이곳 척산족욕공원에서는 인근 온천장에서 공급하는 따뜻한 온천수에 발을 담구고 쉴 수 있어 탐방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속초 경제성장의 주역

오징어



명태와 함께 오늘날의 속초를 있게 한 대표적 어족자원이 오징어다. 1960~70년대 속초의 산업을 주도하였고 속초의 시세 확장과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어업의 중심에 오징어가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속초에 정착한 실향민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였다. 부닷가에는 오징어가 넘쳐났고, 아낙네들은 오징어 할복으로 살림에 보탬을 주었다. 오징어 건조장이 흔했고, 부두의 마른 오징어 시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속초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1963년 속초에서는 1만3,649톤의 오징어를 잡아 전체 어획고(3억6,800만원)의 절반인 1억8,600여만 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오징어 어획량은 해양 생태계 변화 등으로 갈수록 줄

어 들고 있다. 속초에서 오징어물회를 비롯해 오징어순대, 오징어불고기, 오징어젓갈, 오징어튀김 등 다양한 오징어요리를 맛볼 수 있다

오징어라는 이름은 ‘까마귀의 적’이라는 뜻의 오적어(烏賊魚)에서 유래되었다. 오즉(烏鰂)·남어(纜魚)·묵어(墨魚)·흑어(黑魚)라고도 하였다. 오적어의 유래로는 ‘물 위에 떠 있다가 까마귀를 보면 죽기 때문《규합총서》’이라는 설과 ‘물 위에 떠 있다가 까마귀가 죽은 줄 알고 쪼면 잡아먹는다고 해서, 까마귀를 해치는 도적이라는 뜻《자산어보》’이라는 설이 있다.

오징어는 바늘이 여러 개인 복합낙시를 이용해 잡는다. 미끼를 사용하지 않고 재빨리 채어 낚는 채낚기 어업이다. 근래에는 한 가닥의 낙시 줄에 일정한 간격(약 80cm)으로 복합낙시(50~60개)를 연결하여 자동으로 감아올리고 내리는 자동조획기로 조업을 하며, 그물로도 잡고 있다. 과거에는 대낙시나 보채낙시를 사용하거나 어민들이 일일이 수동 롤러를 돌려 낚았다.

오징어는 밤이면 수면으로 올라와 소형 어류 등을 잡아먹는데, 이때 행동이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불빛을 따라 모여드는 습성이 있어 형광색 낙시채를 사용하고 집어등을 강하게 밝혀 조업을 한다. 이 때문에 오징어철이면 동해바다는 채낚기어선의 집어등 불빛으로 장관을 이룬다. 오징어는 속초 등 동해안 연안과 울릉도, 독도 부근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잡혔으나, 최근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잡힌다.

여름철, 장사항에서는 매년 오징어맨손잡기축제가 열린다. 내항의 앞은 곳에 그물을 치고 오징어를 낚 다음에 잡는 방식인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잡은 오징어는 그 자리에서 회를 썰어 준다.

실향민 대표음식

바 오
바 징
미 어
술 술
래 래



오징어순대와 아바이순대는 속초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이다. 원래 함경도지방의 고유음식이지만 한국전쟁 이후 속초에 정착한 실향민들에 의해 속초의 대표 향토음식으로 거듭난 실향민 음식이다.

한반도의 순대는 제주도의 피순대에서 비롯된 남방형 순대와 함경도 아바이순대에서 비롯된 북방형 순대로 나뉜다.

제주도의 피순대는 고려시대 몽고 군사들이 주둔하면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돼지 창자 속에 피(선지)를 넣어 만든 순대로 주로 제주도과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한 음식이다. 요즘은 두부와 야채 등을 넣어 만들지만 기본적으로 피(선지)를 많이 넣어 만든다.

북방형 순대라 할 함경도 아바이순대는 조선 세종 때 4군 6진 개척 등으로 함경북도 지방이 조선으로 편입되면서 여진족 등 이민족의 음식

문화가 한반도로 유입될 때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전쟁 때 월남한 실향민들에 의해 서울과 전국으로 퍼졌다고 한다.

함경도 지방에서는 마을잔치나 경사가 있을 때면 돼지를 잡고 그 대창에 속을 채운 순대를 만들어 먹었는데, 이 돼지순대를 함경도식이라고 해서 아바이순대라고 부른다.

아바이순대는 돼지 대창에 무청 시래기, 돼지고기 잘게 썬 것, 선지, 마늘, 된장 등을 버무려 채워 만들어 썬 낸 것인데, 선지보다는 야채와 곡물을 많이 넣어 만든다는 점에서 피순대와 차이가 난다. 요즘은 선지를 더 줄이고 찹쌀을 첨가해 찰진 맛을 더했다. 돼지의 대창으로 만들어 크기가 보통 순대의 2, 3배로 커서 왕순대라고도 한다. 2000년대 이후에 속초의 향토음식으로 상품화되었다. 돼지 한 마리 당 50cm에서 1m밖에 나오지 않는 대창을 구하기 힘들어서 요즘은 보통 돼지 소창으로 아바이순대를 만들어 판매한다.

함경도 해안지방에서는 돼지 내장이 귀했기 때문에 명태가 많이 나는 겨울에는 돼지 대창 대신 쉽게 구할 수 있는 명태에 속을 채워 만든 순대를 제사상에 올렸으며, 여름에는 구하기 쉬운 오징어로 순대를 만들어 먹었다. 속초에 정착한 함경도 출신 실향민들은 수산도시 속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오징어와 명태를 이용해 순대를 만들어 먹게 되었다.

아바이순대와는 달리 오징어순대는 선지 대신 각종 야채가 푸짐하게 들어 있어 오징어의 쫄깃한 육질감과 야채의 담백한 맛이 어울린 별미로 손꼽힌다. 설악산 관광 붐이 일어난 1970년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속초의 대표 향토음식으로 전국에 알려졌다. 반면 명태순대는 실향민 일반가정에서는 만들어 먹었지만 상품화는 되지 않았다. 순대는 외래 전파 음식이지만 오징어순대와 명태순대처럼 생선의 속을 채워 만든 생선순대는 순대문화가 지역특성에 따라 창조적으로 거듭난 한반도 고유 음식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동해안 대표 포구

대 포 항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속초의 대표적인 관광어항이다.

양양을 거쳐 해안가를 따라 속초로 들어서면 설악산으로 끼여지는 곳에 해맞이공원이 자리하고 있고, 그 곳에서 한 굽이만 돌면 속초의 관문 대포항에 닿는다. 항포구 내에서 푸른 동해바다를 조망하며 철 따라 어획되는 오징어, 가자미, 도루묵, 문어, 홍게, 조개류 등 각종 수산물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인근에 속초해변과 외옹치 해변이 자리하고 있고, 설악산과도 가까워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지금은 ‘속초시의 대포항’이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속초의 토태가 된 곳이며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었다. 일제시대를 비롯해 한국 전쟁을 전후하는 시기에 발행된 우리나라의 지도에는 속초는 표기되지 않았지만 대포항은 표시가 되어 있었다.

대포항의 쇠락은 1930년대, 속초항이 축항 공사로 본격 개발되면서 시작되었다. 대규모 공사로 속초에 인구가 유입되고 규모가 커지자 대포에 있던 어업조합이 1936년 속초항으로 이전했다. 이듬해에는 양양군 도천면 대포리에서 있던 면사무소가 속초로 옮겨갔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면서 대포항은 한적한 포구가 되었다.

그러다 1970~80년대 설악산과 동해안이 관광지로 유명해지면서 설악산 입구에 위치한 대포항에도 동해안에서 갓 잡은 싱싱한 활어회를 맛보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한적한 포구였던 대포항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관광객들은 대포항 진입로의 새우튀김을 맛보고, 어판장의 활어 난전에서 회 한 점에 소주를 기울이며 동해안 포구의 낭만을 즐겼다.

그러나 정부와 속초시는 국가어항인 대포항을 다기능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항만 매립과 방파제 및 물량장 조성에 들어가 2012년말 대부분의 공사를 마쳤다. 대포항개발사업으로 동방파제(780m)·남방파제(310m)와 동측물량장(190m)·남측물량장(450m), 친수호안(302m), 주차장(850여대), 매립부지 18만7천여㎡(분양면적 4만6008㎡)가 조성됐다. 10톤급 어선 405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친수호안은 원형 형태로 곡선미가 아름답고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관광객들이 쉽게 바다와 접할 수 있으며, 동방파제 위에는 나무의자와 돌의자가 놓여 있어 편히 앉아서 동해바다와 멀리 설악산을 조망할 수 있다. 대포항 입구~동방파제 인근 주차장(860m)까지 폭 18m(4차선)의 도로가 개설되어 항구 내 차량 통행이 원활해졌다. 대포항에는 수산물유통센터, 어업인복지회관, 수산물직매장이 들어서고, 스파·위더파크·휘트니스센터·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24층과 29층 호텔이 건립될 예정이다.

함흥에는 없는

함흥냉면



함경도 실향민들에 의해 뿌리 내린 속초의 대표음식 중 하나로, 생선 회를 곁들여 비벼 먹는 함흥식 냉면이다. 원래 ‘함흥냉면’이란 이름은 없었으나, 함경도 실향민들이 평양냉면에 대응해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는 함흥냉면이란 용어는 없고 함경도의 특산음식으로 감자농마(전분)국수가 있다. 한국전쟁으로 속초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이 이 감자농마국수를 계승·발전시켜 이름 붙인 것이 함흥냉면이다.

함경도 감자농마국수도 지역에 따라 국수에 올리는 고명이 다르다. 삼수, 갑산, 혜산 등 내륙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사용한 반면, 함흥을 중심으로 한 바닷가 지역에서는 가자미와 명태, 가오리회 등 생선회를 썼다. 함흥 일대의 농마국수는 회를 얹어 나오는 ‘회국수’와 회를 무쳐 나오는 ‘비빔국수’가 있다. 함흥냉면도 회국수와 비빔국수로 나뉘는데, 속초에서는 회국수를 알아줬다.

평양냉면과는 면의 재료에서 차이가 난다. 메밀에 녹말을 섞어 쉽게 끊어지는 평양냉면과 달리 감자녹말을 사용해 면발이 질기고 오돌오돌 씹히는 맛이 매력이다. 면을 삶는 시간도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평양냉면에 비해 매우 짧다. 더운 물로 반죽한 전분 덩어리를 국수틀에 넣고 면을 뽑아 끓는 물에 1분이 채 안 되게 순식간에 삶은 후 재빨리 찬물에 씻어 사리를 만든다. 다른 지역의 냉면은 대부분 메밀로 면을 뽑았는데, 함경도에서만 감자녹말을 사용해 지금의 함흥냉면으로 이어져 온 것은 메밀이 없었던 대신 상대적으로 감자가 풍부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함흥냉면 전분으로 감자녹말 외에 고구마, 옥수수가루도 사용한다.

함경도 사람들의 억척스러운 기질을 닮았다는 함흥냉면은 질긴 면 위에 생선회를 얹고 찬 사골 육수를 적당량 부어 매운 양념장으로 비벼먹는다. 속초에서는 초기에 생선회로 가자미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가자미 어획량이 적고 비싼데다 비린내가 나 쥐치와 가오리도 사용하였고, 80년대 이후부터는 대부분 명태회를 쓰고 있다. 명태회는 염절임, 초절임, 당절임 과정을 거쳐 만든다. 함흥냉면에는 고명으로 배, 오이, 소고기 수육과 소화를 돕는다는 삶은 달걀, 무김치가 필수로 들어간다.

함흥냉면은 면발이 길고 질기다고 가위로 잘라 먹기도 하는데, 면을 자르지 않고 한 번에 들이키듯 이어 먹어야 제 맛이라는 이들도 있다. 함흥냉면에는 소고기와 닭발을 삶아 만든 육수인 뜨끈한 ‘장국’이 따라 나온다. 장국으로 먼저 속을 달랜 후 냉면을 먹고 다시 장국을 냉면그릇에 부어 남은 양념까지 말끔히 행귀먹는 것도 함흥냉면만의 독특한 먹는 방식이다.

속초의 유명음식인 만큼 속초에는 함흥냉면 음식점이 50여 곳이나 된다. 속초 함흥냉면의 원조로 한국전쟁 중인 1951년에 문을 연 ‘통일면옥’과 ‘함흥냉면옥’을 꼽는다.

속초의 전천후 유원지

엑스포공원



청초호와 접해 있는 시민공원으로 ‘청초호유원지’로도 불린다. 속초시가 오염된 청초호변 정비와 도심 속 관광·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1993년 12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공유수면과 주변 부지를 매립하여 총 면적 33만4,263㎡ 규모로 조성한 곳이다. 속초시 유사 이래 가장 규모가 큰 국제행사이며, 전 세계에 강원·속초관광을 새롭게 인식시킨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된 속초관광의 의미 있는 장소로, 이후 ‘엑스포공원’이라 통칭되고 있다. ‘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이란 주제 아래 1999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개최된 강원국제관광엑스포는 세계 60개국 78개 지방정부와 국내 34개 지방자치단체, 80여개 기업체가 참가하여 다양한 관광상품과 문화공연 등을 선보였으며, 226만여 명의 관람객이 세계관광의 현장을 만끽했다.

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주제관과 상징탑(엑스포 타워)이 엑스포광장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자연환경·청정이미지를 보석으로 승화한 중앙의 바위모양에 양쪽 날개가 동해를 향하여 비상하는 형상을 갖춘 주제관은 지상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전시관, 영상관, 기념관, 정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름다운 여인상을 연상케 하는 나선형 상승구조의 엑스포타워는 총 73.4m 높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65m에 설치된 전망대에 올라, 동쪽으로는 동해바다와 금강·설악대교를, 서쪽으로는 설악산 울산바위와 대청봉까지 조망이 가능하며, 타워에 설치된 색색의 조명에 의해 멋진 야경을 관람할 수 있다.

공원에는 호수 둘레를 따라 나있는 산책로를 비롯해 쉼터, 어린이 놀이터, 분수대, 조류관찰 조망대, 시민식수공원, 놀이공원, 유람선 선착장, 매점, 음식점,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등 각종 편익·체육시설이 잘 조성돼 있어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휴식 및 여가, 운동을 위해 찾고 있으며, 각종 축제와 행사, 공연, 체육대회 장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속초시의 정월대보름행사와 대한민국음악대향연, 어린이 날 행사 등이 매년 이 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청초호는 수많은 종류의 철새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어서, 엑스포공원은 철새 관찰지로도 유명하다. 특히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매년 겨울 문턱에 엑스포공원 일대에서 겨울철새들의 무사귀환을 환영하는 ‘겨울철새맞이’행사를 연다.

2012년 4월, 석봉도자기 방면에 청초호해상공원 정자(청초정)와 해상보행교(75m)가 조성되어, 청초호 내에서 엑스포공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멀리 설악산을 조망할 수 있다. 야간에 호수 너머로 보이는 속초 도심의 야경도 매우 아름답다. 엑스포공원 산책로를 따라 실향민의 고장 청호동을 돌아보거나 도심 해변길을 따라 푸른 동해바다를 관망하며 갯배 선착장, 동명항, 영금정, 장사항에 이를 수 있다.

문화상징_4

인물



사람과 산을 사랑한 속초의 슈바이처

1913~2006
이기섭



사람을 사랑한 의료인이자 설악산을 사랑한 산악인이다. 1962년 이화여대병원장이라는 직책을 버리고 속초에 내려와 무의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람들이 그를 속초의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이유다. 설악산을 개발하고 알리는 데도 큰 공로를 세웠다. 등산로 개발과 향토축제인 설악제 개최, 설악산 케이블카 개통 등에 앞장섰다.

고 이기섭은 1913년 11월 9일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 하도리 수안 이씨 집안에서 1남3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해주공립고등보통학교 4학년 때 식민지 교육을 반대하는 단식동맹휴학에 가담해 퇴학처분을 받아 다시 일본 광능중학교에 편입해 졸업했다.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하고 일본 경도제대에서 의학공부를 했다. 1943년에 귀국하여 세브란스의전 전임 강사를 거쳐 1946년 서울 적십자병원 외과 과장으로 재직하였으며, 1949년 6월 26일 백범 김구 선생의 시체를 검안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중 3개월 동안 북한 치하에서 지냈으며, 전쟁 중에 피난민과 주민 치료

에 헌신하였다. 이후 1953년 4월 이화여대 의대 부교수, 다음해 4월에는 교수로 승진하면서 이대 부속병원장으로 취임하였다. 4.19 직후 어수선한 시국에 8년간 재직하던 이대 병원장과 교수직을 모두 그만두고 1962년 5월 속초로 왔다.

고 이기섭은 지역 사람을 사랑한 헌신적인 의료인이었다. 1962년 속초에 정착하여 개업한 이래 한결같이 지역 의료인으로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2년 동안 제주도에서 병원 일을 하다 돌아온 고 이기섭은 이후 속초시보건소장, 도립병원 외과과장, 의사협회장을 지내다가 1983년 병원을 떠났다. 퇴임한 1983년부터 2004년까지 21년간 매주 목요일이면 시내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갈 수 있는 오지마을 양양군 서면 서림리를 찾아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의촌진료사업을 펼쳐왔다. 거동이 힘들어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저버리지 않았다.

설악산 개발과 홍보에 큰 공을 세운 산악인으로도 이름이 높다. 수차례 설악산 등산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사람들에게 설악산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했다. 설악산악회를 창립하여 1965년 양양관광협회 박태송 회장과 함께 천불동계곡 일대에 등산로를 개척하였다. 아울러 백담사~봉정암~양폭~신흥사 코스와 백담사~오세암~마등령~비선대~신흥사 코스를 개발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1970년 4월 설악산 개발에 뜻을 두고 설악관광주식회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소공원에서 권금성 구간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했다.

속초의 대표향토 축제인 설악제는 고 이기섭이 아니었다면 없었을지도 모른다. 1966년 10월 1일 속초예총 최구현 지부장과 함께 설악산악회가 주동이 되어 등산대회를 포함한 제1회 설악제(이후 설악문화제로 이름을 바꿈.)를 개최하였다.

2006년 12월 25일 93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자, 속초시장을 비롯한 지역인사들이 나서서 ‘속초시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21명의 선원들을 구한 살신성인의 선장

1946~1990
유정충



1990년 3월 1일 오후 1시 51분경, 사흘 전 속초항에서 출항한 하나호는 제주도 남쪽 350마일 지점인 동지나해에서 오징어 조업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3~4m 높이의 파도가 심한 바람과 함께 하나호를 덮쳤다. 제 목숨 하나 건지기도 버거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호의 선장은 21명의 선원들을 구명보트에 태워 탈출시키고 반쯤 잠긴 조타실로 들어가 무전기를 붙들고 필사적으로 구조를 요청했다.

“602 하나호 침몰 중”

선원들이 탈출한 직후 배는 뒤집히면서 바다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선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구조 신호를 보내느라 침몰된 배와 함께 실종되고 말았다. 표류하던 선원 21명은 모두 구조되었다. 난파된 배에서 선원 21명을 구출하고 자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구조를 요청하다 순직한 이가 유정충 선장이다.

그는 1946년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읍 신포리에서 부친 이상용씨와 모친 장중희씨 사이에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가 2살일 때 부친은 혼자 월남하여 서울로 왔고, 가족들은 6.25 전쟁 중인 1950년 10월 목선을 타고 월남하여 부산에서 부친과 상봉하였다. 부산 영도국민학교와 덕원중학교를 거쳐 덕원공고로 진학했다가 2학년 때 해병대에 지원 입대했다. 입대 후 월남전에 파병되었으나 총기사고로 오른쪽 팔에 총상을 입어 귀환했다. 부산에서 전기기기를 수리하는 노점상을 하다가 1967년 외삼촌의 부탁으로 속초에 정착해 오징어 건조를 거들었다.

25살에 자기 배를 가졌지만 야간 미역 채취 중 간첩으로 오인 받아 총격으로 턱에 관통상을 입고 실신하였으며, 조업 중 기관고장으로 4박 5일 동안 표류하다 구조되기도 했다. 1979년 나이 33살에 6급 항해사 시험에 합격했다. 속초수협 소속 협동호 선장이 되어 3년 연속 오징어 다획상을 받았으며, 1981년에는 조난어선 구조로 속초시장 공로표창을 받았다.

그는 오징어다획상 상금을 동료선원의 전화설치비로 내놓고, 부상으로 받은 양복티켓도 선원에게 주기도 했다. 협동호에서 130톤급 만성호로 배를 갈아탔을 때는 언어장애인 8명을 승선시키기도 했고, 조업 중에 복어를 먹고 사망한 선원의 장례를 가족 대신 치러주기도 했다. 자기 집에서 합숙을 시킨 선원들을 4명이나 선장시험에 합격하도록 지원하고, 합격 후에는 배를 타기 전까지 쌀과 부식을 대 주기도 했다.

고 유정충 선장의 살신성인의 삶은 전국 어업인의 표상이 되는 위대한 유산으로 길이 남아 있다. 유정충 선장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온 국민이 그의 의로운 죽음에 감동하고 슬퍼했다. 유선장의 장례식은 사상 처음으로 전국 어민장으로 거행되었으며, 유선장에게는 국민훈장 목련장이 추서됐다. 다음해인 1991년 1월 9일에는 그를 추모하는 동상이 금호동 근로복지회관 뒤편에 세워졌다.

학처럼 살다간 조선의 선비

1872
吳潤煥
오윤환
1946

구한말에 태어나 해방 이듬해까지, 전 생애에 걸쳐 청명한 선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 속초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교육자다. 자는 성빈(聖彬), 호는 매곡(梅谷) 본관은 해주이다.

조선 고종9년(1872)에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1리에서 태어난 매곡 오윤환 선생은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다. 율곡 이이의 사상을 계승한 매곡 선생은 높은 학문의 경지에 도달했으나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아 벼슬길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대신 마을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농사와 학문 연구, 제자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3·1운동 때에는 제자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옥고를 치렀고 일제의 단발령과 창씨개명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반대하였다. 강한 주체의식으로 식민지 교육에 반대하는 한문

서당을 열어 민족의 뿌리를 잇는 교육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평생 한복에 상투를 틀고 생활하였는데 고종이 승하하였을 때가 상투를 푼 유일한 날이다.

그는 기록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주는데 19세 때부터 74세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까지 일기를 썼다. 55년 동안의 일기는 매곡일기라는 이름으로 모두 3권이 남아 있는데 우리 지역 선비의 일상과 농경생활, 날씨 등을 짐작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매곡 선생은 아침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는 효행을 실천했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한평생을 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인생의 말년인 1934년에도 상도문리 쌍천 옆 푸른 송림 속에 친척들과 제자들의 협조를 얻어 학무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많은 선비들과 함께 시를 읊고 글을 지었으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도장으로 삼기도 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매곡처사’ 또는 ‘오학자’라 부르기도 한다. 작품으로는 유봉정(留鳳頂), 상봉정암(上鳳頂庵)이 있다. 1946년 7월에 별세하였다.

한문본인《매곡유고(梅谷遺稿)》는 매곡 선생의 한문시와 여러 글들을 묶어 1980년 건곤 2권으로 출간하였다. 건(乾)에는 매곡선생 영정과 학무정 전경이 수록되어 있으며 어경학의 서문, 7언 자작시 312편, 학정상량문, 학무정서, 학무정기 80편, 외지인 한시 120편이 수록되어 있다. 곤(坤)에는 제문, 묘갈명, 유금강실기, 동년계서문, 선조행장 등이 수록되어 있는 중요한 책자다. 건권에는 신흥사, 계조암, 학무정에 대한 다양한 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곤권에는 선조의 행장과 지금은 볼 수 없는 묘갈명문들이 수록되어 있어 문헌자료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북청사자놀음을 되살린 진정한 예인

1907~1997
金壽石
김수석



함경남도 북청읍 주평리 출신으로 1958년 속초에서 처음으로 북청사자놀음을 재현하였다.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에서 정월 대보름에 사자탈을 쓰고 놀던 민속놀이이다. 사자에게는 사악한 것을 물리칠 힘이 있다고 믿어 잡귀를 쫓고 마을의 평안을 비는 행사로 널리 행해졌다. 음력 1월 14일 밤부터 장정들의 횃불싸움으로 시작해 15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16일부터는 집집마다 돌며 액운을 쫓았다. 북청사자놀음은 대사의 묘미나 풍자적인 측면보다는 사자춤의 묘기와 흥겨움이 중심이 되어 다른 사자춤사위보

다 교묘하고 힘찬 동작이 특징이다.

본래 북청 지역의 놀이였던 것이 이 지역 출신들이 월남해 속초의 청호동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속초에서 다시 살아났다. 1958년 북청 사자놀음에 쓰이던 사자탈을 속초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재현한 이가 김수석이다.

김수석은 북청대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열세 살부터 사자춤을 추기 시작하여 열아홉 살 때에는 남들 앞에서 ‘애원성(哀怨聲)’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기량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1·4후퇴 때 월남하여 이 발사, 어부 등 생업에 전전하면서도 사자놀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1959년 5월 2일, 김수석을 중심으로 속초에서 북청동향 친목계를 만들어지면서 북청사자놀음 연단 결성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6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대회에서 김수석은 개인상을 받았는데 그 이듬해 북청사자놀음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고 김수석도 인간문화재 제84호로 지정되었다. 그 후 속초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 당시 이 지역 여건상 전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 부득이 이북5도민 본부가 있는 서울로 이전하게 되면서 전수회관이 지어져 북청사자놀음 보존회가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김수석은 끝까지 지역에 남아 어려운 생활에서 연금으로 지탱하면서도 북청사자놀음을 오늘날까지 지켜 왔던 산 증인이요 오직 한길을 걸어온 기능보유자였다. 1997년 10월에 별세하였다. 속초시립풍물단에서는 북청사자놀음에서 속초사자놀음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양양만세운동을 이끈 독립운동가

1859 ~ 1932
李錫範
이석범



평생 조국의 독립과 속초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자는 사일(士一), 호는 설초(雪樵).

공은 조선조 인종 때 필선양양부사를 지낸 이춘령의 10대손으로 1859년 양양군 임천리에서 태어났다. 부모가 도천면 중도문리(현재의 속초시 설악동)로 이주하면서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다. 전통적인 유림가문에서 태어난 이석범은 학문에 정진, 1884년 스물다섯 나이로 초시에 급제했다.

동학란 때에는 반동학군을 조직하여 의병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장년에 이르러 한학의 대가로서 명성을 날렸다. 1899년에는 중추원의 관을 거쳐 1905년 군부주사겸 군기창기수에 임명, 국정의 심의에 참여

하여 토비(土匪) 평정을 하고 신흥사를 파산에서 복구했다.

1910년 한일합병이 된 후에는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 은인자중하던 중 뜻하는 바 있어 초대 도문면장을 잠정적으로 역임하게 된다. 도문면장에 오른 공은 개화에 눈을 돌려 대포항을 크게 개항하고 물물교역의 경제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했다. 또한 당시 양양군수로 재직하며 대중 계몽과 교육에 헌신하고 있던 남궁역과 양양 현산학교, 도문 쌍천 서숙을 설립하고 후진 양성 및 항일 애국정신의 확산에 노력했다.

1919년 3월 1일 망국의 쓰라림 속에서 고종 황제의 국장에 참여한 뒤 손병희 등 33인이 주도한 기미독립만세운동을 목격한 공은 벼신 속에 독립선언서를 숨겨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향에 돌아온 후 동생 이국범, 장남 재훈, 차남 재형 그리고 족손이 되는 이교완, 이교정을 중심으로 중도문 출신으로 김영경, 이종국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양양면 임천리 이교완의 집을 거점으로 최인식 등 50여 명을 각 면의 동원 책임자로 정하고 양양 장날인 4월 4일을 기해 양양만세운동의 불길이 오르게 됐다.

양양읍은 물론 대포, 물치, 기사문 등 양양지역 6개면 82개 동리의 남녀노소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9일까지 6일 밤낮동안 계속되며 13명의 사망자와 7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구금 또는 수형자만도 172명에 이르며 우리나라 만세운동 중 그 규모와 치열함에서 손꼽히는 양양만세운동의 중심에 이석범이 있었다. 공은 동생 국범과 두 아들 등과 함께 투옥되어 혹심한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이석범은 옥고와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1926년 6월 10일 순종 국장에 참례하고 1927년에는 월남 이상재 선생 등과 민족주의 통합체인 신간회를 조직하여 강원도 지부장으로 취임, 활약하는 등 조국의 독립에 여생을 바쳤다. 1932년 9월 1일 74세를 일기로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숨졌다. 이석범의 장남 재훈과 동생 국범에게는 지난 1990년과 2005년에 각각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속초의 미래를 설계한 지역의 어른

1890~1948
朴祥禧
박상희



속초시 장사동(장천리) 출신으로 호는 초은(樵隱)이다. 한학에 조예가 깊을 뿐 아니라 신문학에도 해박하였으며, 성품 또한 온후인자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1925년 일본 관리가 그를 회유하기 위해 도 평의원으로 위촉하였으나 거절했다. 이후 지역주민 복지 행정 시행에 힘써 달라는 구실을 붙여 1928년 도천면장으로 천거하였다.

도천면장이 된 그는 대포리가 당시로서는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지 못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속초의 지형지세를 면밀히 관찰해 어업을 중심으로 한 항구도시로서의 속초를 설계했다. 이 무렵 속초의 인구는 불과 1만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10~15만 명의 사람이 사는 도시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 설계를 현실화시키는 첫 번째 일이 당시 총독부로 하여금 속초축항공사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때가 1930년이다. 대규모 공사가 발주되자 속초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신문물의 유입이 가속화되었다.

또한 속초를 내륙과 가깝게 연결하기 위해 1933년 미시령 차도개설을 주민 부담만으로 시행하고 대관령사업을 연이어 발주하였다. 1937년 면사무소를 속초로 이전 단행하는 등 지역대개발 사업을 전개하였고 이어 주재소, 우체국, 금융조합, 어업조합과 심지어 일본인 심상소학교마저 속초로 이전하게 하였다. 이러한 그의 노력 덕분에 1942년 도천면은 읍으로 승격되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속초 지역은 38선 이북으로 공산치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우익진영 인사들이 구속, 문초되었다. 박상희 역시 많은 모임에 참여하는 등 우익진영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나 구속되거나 소환되지 않았다. 다만 미행전담 내무서원을 뒤 동정만 살피게 했는데 이는 공산당도 그의 인품과 행적에 위압을 느낀 것이라 하겠다. 사실상 모든 활동을 억제당한 채 1948년 향년 59세로 별세하였다.

1958년에 당시 읍장이던 전성우가 동명동 로타리에 송덕비를 건립하였고 이후 1992년 8월에 대포파출소 옆 비석공원에 구비(舊碑)와 함께 신비(新碑)가 세워져 있다.

설악산 비경의 작명가, 사진작가

최구현
1920~2012



1950년대,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설악산을 처음으로 관광화보집에 담아 국내외에 널리 알린 사진작가다.

1920년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에서 4남3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5세 때 금강산 일대 건축청부를 맡아 산장공사를 하던 부친(목수)을 따라 북고성 온정리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금강산 사진조합’ 조수로 근무하며 사진술을 배우기 시작, 20세 나이로 최연소 사진사 면허증을 획득하고 정식 사진사가 되었다. 22세 때 일본군으로 징병, 만주에서 2년여 군 생활을 하다 해방을 맞았으나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 3년간 감옥생활을 하고 귀국하였다. 이후 외금강 인민군휴양소 소속 사진사 겸 안내인으로 근무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해 1·4후퇴 때 남하, 1952년 8월 속초에 정착하였다.

최구현 선생은 1956년 카메라와 현상장비를 둘러메고 처음으로 설악산에 들어갔다. 당시 관광협회장을 지낸 고 이달영 씨와 3군단 공병대의 지리탐사요원, 무장군인 등과 동행하며 20일 간 설악산의 비경을 카

메라에 담았다. 이 사진들을 모아 58년 최초의 설악산 관광화보집을 500부 발간했다. 이어 63년 박경원 도지사의 부탁으로 ‘동해안과 설악산’이라는 제목의 화보집을 150부 제작하였으며, 69년에는 최초의 설악산 칼라화보집을 200부 발간해 전국의 관광여행사와 각 기관에 배포하였다. 3권의 화보집은 모두 설악산의 비경에 대한 한글설명 이외에 영문설명이 함께 들어있다.

그의 업적 중 하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부르는 설악산 비경의 이름을 많이 만들었다는 점이다. 화보집을 만들어야 하는데 도대체 설악산 일대의 지명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신흥사에 적을 두었던 스님으로부터 일제시대 때 제작한 신흥사지를 찾아내어 정확한 지명을 확인하였다. 이름조차 없는 절경들은 직접 작명했다. ‘육담폭포’ ‘비룡폭포’와 ‘선녀봉’등 그가 직접 지은 이름들은 오늘까지도 사용된다.

화보집 발간 후 설악산은 전국 사진작가들의 촬영명소로 부상했고, 59년에는 영국황실 아시아학술학원 일행 90여 명이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설악산을 찾았다. 당시 자동차길이 없어서 외국인 유치가 어렵다고 호소하여 국방부가 대포동에서 설악동까지 도로를 닦았다. 설악산관광을 위해 최초로 호텔(현 설악산관광호텔, 당시 10칸짜리 목조호텔)을 건립하고, 속초에 비행기가 취항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2년에는 설악산 천불동계곡의 등산로를 개설하는 데 일조했으며, 66년에는 예총 초대 속초지부장을 맡아 ‘설악제’를 처음으로 열었다. 설악산 개발의 공적을 인정받아 60년 교통부장관 표창장을 받고, 69년 강원도문화상, 92년 속초시민문화상(지역개발부문)을 수상하였다.

선생은 2012년 3월 1일 향년 93세의 일기로 영면, 고성군 가진리 고성공설묘원에 잠들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선생이 남긴 카메라와 촬영기자재, 속초와 설악산의 모습이 담긴 필름 등을 전시하는 최구현 작품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문화상징_5

문화예술행사



개인을 넘은 지역의 기록

매곡일기
梅谷日記



상도문리에 살았던 유학자 매곡 오윤환 선생이 19세였던 1891년부터 74세로 돌아가시기 전날인 1946년까지 55년간의 일과를 쓴 일기다. 매곡일기는 모두 3권인데 1권은 1892년(신묘년) 정월부터 1909년(기유년) 12월까지, 2권은 1910년(경술년) 정월부터 1941년(신사년) 12월까지 기록되어 있다. 속수일기라고 표지에 적혀 있는 3권은 1942년(임오년) 정월부터 매곡선생이 돌아가시기 전날인 1946년(병술년) 7월 11일까지 기록되어 있다. 구한말부터 해방 직후까지 하루하루의 일과를 기록하고 있어 이를 통해 당시 우리 지역 선비의 일상과 농경생활 등을 짐작해볼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울곡 이이의 사상을 계승한 매곡 선생은 지역의 대표적인 한학자이자 교육자였다. 당대의 지식인이 격동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각 시대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일기에 나타난 대한제국 황제에 대한 예의, 동학과 의병을 대

하는 자세, 일제강점기 지배층에 대한 태도 등을 통해 유학자로서의 매곡 선생의 모습은 물론 그와 교류하던 문인들의 생각도 엿볼 수 있다.

매곡 선생은 매일 일과를 정리하면서 날씨도 함께 적었는데 날씨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변화도 함께 기록했기 때문에 당시 속초 지역의 기상상황은 물론 농사와의 연관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날그날 자신을 찾아와 공부한 사람들을 기록한 서숙일지의 형식을 띠고 있는 일기의 내용을 통해 특별한 교통수단을 가지지 못하였지만 학문을 배우기 위한 사람들의 이동범위를 알 수 있다. 나아가서는 지명과 인명을 분석하여 관련된 집안의 족보와 비교하면 당시의 인적, 물적 교류 상황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문인들과 교류, 금강산 등 외지 유람, 관혼상제와 관련된 여러 풍속들의 모습을 일기에 서술하고 있어 근세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인 것이다.

55년간의 기록은 개인기록을 넘어서 지역문화와 당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인류의 기록유산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개인기록이 과거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교훈을 주게 되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지역사를 교육할 때 이 내용을 포함한다면 자신의 기록 정리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일기의 내용을 복원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당대의 문화가 외세에 의하여 절단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단절된 문화를 복원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계승의 지를 드높여야 한다.

일기에 나타난 농경민속과 제지산업을 복원한다면 충분히 문화상품이 될 수 있다. 24절기에 의하여 진행된 농경생활과 제지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매곡 선생이 살았던 도문동 지역에 체험활동공간을 포함한 전시관을 건립하여 지역민 및 관광객을 상대로 한 지역문화를 판매하여야 할 것이다.

실향의 애환

속초 북청사자놀이



〈북청사자놀이〉은 삼국시대의 기악(伎樂)·무악(舞樂) 이래 민속놀이로 정착된 가면놀이로, 주로 대륙계·북방계인 사자무가 민속화된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1930년대까지 북청일대에서는 음력 정월 14일에 여러 마을에서 장정들의 편싸움이 벌어졌으며, 달이 뜬 뒤부터 시작된 사자놀음은 15일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16일 이후는 초청받은 유지(有志)의 집을 돌며 놀았다고 한다.

속초는 북한의 민속극인 북청사자놀음이 한반도 남쪽에서 최초로 연행된 곳이다. 1945년 해방과 1950년 6·25 전쟁 이후 북한에서 월남한 함경도민들이 고향에 가고 싶은 그리움으로 정착한 곳이 속칭 아바이마을로 불리는 청호동이었고, 이곳에서 최초의 북청사자놀음이 공연되었다. 1957년 음력 정월대보름날, 월남한 북청출신으로 사자놀음 연희자인 김수석과

통소 명인 김하륜 두 분이 함경도민 가운데 사자놀음을 보았거나 실제로 했던 실향민들을 중심으로 북청도청 건립을 위한 공연을 하였다. 이후 1958년 제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한 이래 여러 차례의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선보이며 알려지게 되었고 1967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속초북청사자놀음은 歌·舞·劇이 함께 어울리는 민속공연문화의 백미라고 일컬어진다. 사자놀음을 비롯해 다양한 춤사위가 통소·장구·소고·북·쟁가리·징 등의 민속악기와 어우러져 오감(五感)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큰 재미는 사자놀음이라고 할 수 있다. 입사자 만들기 등 다양한 춤사위를 보여주는 사자놀음은 우리나라의 여러 사자놀음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역동적인 춤사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여러 놀이꾼이 나와 냇두리춤, 꼬추춤, 사당 거사춤, 칼춤 등의 볼거리를 보여주는 점도 속초북청사자놀음의 특징 중 하나이다.

속초에서는 김수석 씨가 1970년 기예능보유자 제84호 지정받고는 속초에서 사자놀음의 정착에 노력하였다. 1982년 동우전문대학생들을 지도하였고, 1988년 음력 정월대보름날 북청출신 10여 명이 사자놀음을 구성하여 걸립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명맥을 유지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다. 1991년 강릉원주대 장정룡 교수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김수석과 김하륜을 현지조사 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1957년 당시의 원형을 기록한 이 책을 바탕으로 속초북청사자놀음이 재탄생하였기 때문이다.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은 2005년 속초북청사자놀음의 민속문화적 가치에 주목하여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함경도 청년회, 일반 시민과 함께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를 결성하여 전승활동을 펼치고 있다. 속초북청사자놀음은 실향민 문화의 정수이자 속초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탄생하여 연간 10회 이상의 공연과 사자탈 만들기 등의 파생 문화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글자놀이의 진수

속초 도리원농악



도리원은 노학동에 속한 마을로 물레방아간이 있었을 정도로 농토가 잘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이다. 이에 따라 농악놀이도 오래전부터 전승되었는데 마을에 사는 노인들의 고증에 따르면 1900년 이전부터 마을에는 농악대가 구성되었다고 한다. 도리원농악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1910년대에 이르러 강릉에 살던 경기도 출신 이설기 씨가 이 마을에 정착하면서부터다. 이후 도리원농악대는 1930년부터 대포동 별신제 굿놀이와 고성 아야진 별신굿에 초청받아 성대하게 농악공연을 했다. 또한 정월달에는 거진읍, 양양 강현면 일대 농가의 초청을 받아 일주일간 머물면서 여러 마을에서 대보름 걸립농악을 했으며 이때 모은 걸립기금으로 소야천 큰다리를 놓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가 끝난 1945년 8월 15일, 속초에서 열린 광

복절 기념 농악대회에서 도리원농악대가 우승할 정도로 전성기를 누린 시절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 농촌의 고령화·이농현상으로 침체기를 겪으며 명맥만 유지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설악문화제를 기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는데 1986년 설악제 당시 도리원풍년마당놀이를 재현하면서 과거의 농악대가 행했던 농사풀이를 살리고, 199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도리원농악대를 개편하였다. 1995년 12월 29일 도리원농악대 옛 구성원이었던 엄상원, 양춘석, 최철수 씨를 중심으로 재창단해 도리원농악의 2세대를 형성하게 된다. 도리원농악의 3세대는 속초풍물단원인 갯마당이 합세하면서 새롭게 전승의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1996년 제77회 전국체전 시연, 설악문화제 공연, 제15회와 19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속초시 대표로 참가하여 공로상 등을 수상하였다.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는 작품성을 인정받아 ‘도리원농악’출연단의 상쇠 엄상원 씨가 연기상을 수상하는 큰 영광을 차지하였다.

속초 도리원농악은 백년전통의 고유한 농촌서낭굿농악의 전통을 계승하고, 뱃고사의 특성을 살리면서 경기농악과 강릉농악의 장점을 계승한 영북지역 유일의 농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도리원농악대의 놀이마당은 걸립굿, 서낭굿, 뱃고사굿, 농사풀이, 진놀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농악대는 정초 대보름부터 영등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음력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마을이나 외부의 걸립굿을 하기 전에 항상 마을서낭당에 가서 마을안녕과 풍년을 기원하였다. 농악대가 외부로 출타하거나 다리가 나올 경우 “다리다리 잘났다 칠령칠령 건너세”라는 장단의 다리굿을 치고 통과한다. 동해안을 끼고 있는 속초지역 특성상 뱃고사에도 농악대가 참여했으며 농사풀이와 다양한 형태의 진놀이도 구성되었다. 특히, 다른 곳과 달리 글자와 놀이를 접목시켜 시각적인 구성을 돋보이게 한 점도 이채롭다.

구성진 가락

속 초 도 문 동 농 요



농요란 농촌에서 논밭 일을 하면서 부르는 소리다. 농사를 지으면서 노동의 힘겨움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소리를 하는데, 특히 김을 매면서 부르는 소리를 중부지방에서는 메나리라고 한다. 이 메나리는 미노리, 미나리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진다.

도문동의 메나리는 소리의 유장함과 곡조 등으로 미루어 불교적 색채가 배어 있는 범패소리와도 비슷한 유형이다. 이같은 추측은 도문동의 지리적 위치가 설악산의 관문으로, 인근에 절이 많아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짐작한다.

도문동의 메나리 농요를 현재까지 전해준 분은 김남형 옹이다. 그는 도문동에 장가 온 이후 처외숙 되는故오세준,故박남식 등에게서 메나리를 배웠다. 메나리는 보통 여럿이 부르는데, 보기와는 달리 상당히 어

려워서 나름대로 음악성이 있어야만 따라 부를 수 있는 소리다.

메나리 소리는 아쉽게도 기계화 영농이 시작되면서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다. 모를 심고 김매기를 하는 것을 기계가 대신하면서부터 차츰 노동의 힘겨움을 이겨내기 위한 소리를 할 필요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와 『강원의 민요』를 편집하던 중 메나리가 발굴되어 광범위한 농요 조사가 이뤄지게 되었고, 논 삶는소리,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메나리소리, 벼베는소리, 도리깨질하는소리, 벧가리지우는 소리 등 수많은 소리가 채록되면서 아직도 이 지역에 옛 소리의 전통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속초문화원의 협조를 얻어 도문농요의 발굴이 시작되어 현재의 도문농요를 구성하게 되었다.

속초도문농요는 농사의 과정을 총 7마당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첫째마당은 서낭굿으로 주민들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고, 둘째마당은 소모는 소리로 소 두 마리가 스투를 끌며 소리를 하게 된다. 셋째마당은 모찌고 심는소리로 흥겨운 가락이 돋보이고 넷째마당은 도문농요의 특징을 가장 잘 알려주는 ‘김매는소리’이다. 다섯째마당은 파대를 쳐서 새를 쫓는 장면을 연출하고 여섯째마당에서는 벼를 베고 나서 소리를 하는 벼베기와 한단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 일곱째마당으로는 마대이와 벧가리 지우는 소리를 한다.

이같은 내용으로 2003년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도문농요>로 참가하여 종합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 열린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속초도문농요를 전국에 알렸다. 이후 속초도문농요는 2007년 2월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08년에는 문화재 보유단체로 지정받았다. 현재 매년 4회 이상의 공연과 전승연습을 통해 체계적인 보급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13년말경 설립하게 될 속초도문농요 전수관은 지역 향토문화 전승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속초시민의 두레망

서 른 바 크 문 화 제



속초시는 백두대간의 설악산과 동해안, 청초호와 영랑호가 조화롭게 형성된 곳으로 그동안 한국 최고의 자연관광지로 알려졌으며, 6·25 이후 실향민들이 난민촌을 형성한 곳이다. 속초시의 이러한 문화가 집약되어 발현되는 곳이 '설악문화제'이다. 이른바 속초지역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집약하고 선양하며, 계승하고 창조하는 한마당 두레망이라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산악제의를 복원하고 동해안의 다양한 해양문화와 분단문화를 포괄한 새로운 이념의 전통지향형, 통일지향형 문화축제로 가꿔온 것이다. 특히, 설악제의 연원을 따지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설악산에서 국가의

중요제사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강원도 내에서 문헌상 드러난 가장 오래된 제례행사이며, 삼국통일 기원 의지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설악문화제를 시기별로 나누면 ① 산악제 중심시기(1회~15회), ② 종합 축제화시기(16회~19회), ③ 민간주도정착기(20회~29회), ④ 특성화모색기(30회~34회), ⑤ 세계화전략추구기(35회~40회) ⑥ 문화관광형 축제 전환기(41회~)로 나눌 수 있다.

40회 설악문화제를 기점으로 축제를 주도할 수 있는 사무국이 신설되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콘텐츠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설악문화제는 크게 4가지 목적을 정립하여 축제현장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첫째, 전통문화예술축제이다. 설악문화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산신제를 비롯한 제례를 원형에 맞게 복원하고 속초의 다양한 향토문화를 재구성하여 설악문화제를 통해 선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삶의 질에 기여하는 문화관광축제이다. 축제를 통해 속초가 문화관광 명품도시가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향토축제이다. 설악문화제에서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주민화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다른 축제와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설악문화제의 전국화이다. 지역색을 가미한 차별화를 통해 설악문화제가 속초문화의 집약이자 우리문화의 새로운 발현이 될 수 있도록 목적의식을 두었다.

이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2010년부터 민간 사단법인으로 독립하였고, 축제 장소를 기존의 엑스포광장에서 속초로테오거리와 설악산으로 분산하였다. 내용에 있어서도 변화를 주었다. 주민화합적 성격이 강했던 사업은 축소하고 관광객을 동원할 수 있는 거리퍼레이드를 새로 선보여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설악문화제는 지역의 대표적 향토축제에서 지역정체성을 앞세운 문화관광축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척박한 풍토를 개척한

문화예술활동



속초시의 문화예술활동은 1963년 시로 승격된 후 사진작가 최구현을 대표로 한 '예총속초지부'의 탄생과 함께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1989년 정식 예총속초지부가 탄생할 때까지 지역 예술계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 문학, 미술, 사진 등의 분과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행사를 꾸준히 개최했다. 1965년 3월에는 속초문화원이 설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1966년에는 제1회 설악제가 개최된다. 등산경기 대회에 268명이 참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진 공모전에 29명, 동시 백일장에 56명, 취주악 경연대회에 2팀, 사진촬영대회에 40명, 미술 실기대회에 200명 등 600여 명이 참가하여 종합문화제의 면모를 갖춘 행사였다.

70년대는 전문 예술활동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해이다. 60년대 말 창

립된 ‘설악문우회’에 의해 1970년에 『갈피』동인지가 탄생하게 되고 가야다방에서 시화전을 열었다. 또한 ‘청년문화연구회’라는 아마추어 예술활동을 하는 청소년 단체가 구성되어 창작활동을 벌였다. 문학,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섯 개 분야로 구성되어 『터』라는 책자발행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 단체는 훗날 연극협회 구성의 모체가 되기도 했다. 이 시기 가장 큰 문화적 사건은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가 1974년 인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예총 속초지부의 종합예술제가 1973년 개최되는 등 각 분과가 매년 활발한 예술활동을 펼쳤다. 1975년 문화상이 제정되어 문화예술부문에 윤흥렬이 수상하였다.

80년대는 속초예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펼쳐진 시기이다. 속초예총의 미술, 연극, 연예협회가 잇달아 지부로 정식인가를 받게 되고 물소리시낭송회(1981년), 합창단 ‘흰뽕’이 탄생되어 시립합창단의 모태가 된다. 그중 가장 큰 활약은 연극이다. 극단 ‘청봉’과 ‘혼성’이 1981년 탄생하고 연극협회가 1983년 창립되면서 연극은 속초의 대표적인 문화분야가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속초문화원의 기관지 ‘속초문화’가 1985년 창간된다. 이 잡지를 계기로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고찰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며 향토문화를 정립하게 된다.

90년대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속초시의 문화활동이 처음 시작되는 시기이다. 종합예술제, 학생사생대회, 청소년연극제, 학생백일장 등의 시민 대상 행사가 개최되었다. 또한 해외교류 활동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을 이끌었다. 90년대는 현재까지 지역 문화활동의 중심에 있는 연극의 ‘굴렁쇠’, 국악의 ‘갯마당’이 탄생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들 두 단체는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의 수준을 올려주었다.

2000년대부터 문화예술의 흐름에 변화가 생긴다. 예술인들의 활동 중심에서 일반 시민의 문화동아리가 양성되고 그 활력이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게 된 것이다. 현재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은 전문예술인과 다양한 생활예술인들이 지역문화를 비옥하게 만들고 있다.

문화상징_6

자연



권장사와 김장사의 전설

권금성



설악산 입구의 노루목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10분 정도 오르면 돌로 쌓은 성이 부서진 모습으로 남아 있는데 이 성의 이름이 권금성이다. 해발 860m라는 높이의 천연요새에 높이 1.3m, 길이 337m 정도의 성을 쌓았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하게 느껴진다.

권금성은 고려 고종 40년(1253년)에 있었던 몽고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워졌으며 처음에는 설악산성이라 불렸다. 권금성에는 성의 축조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옛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근처에 살고 있던 권장사와 김장사가 가족들을 데리고 설악산으로 피난을 왔다. 추격해오는 적을 막기 위해 산정에 올라 성을 쌓으려고 했으나 산정 근처에는 성을 쌓을 만한 돌이 없었다. 두 장사는 한동안 고민하다가 권장사가 좋은 제안을 했다.

“내가 냇가로 내려가서 돌을 집어 던질 테니 김장사는 산 위에서 그것을 받아 성을 쌓으시오. 밤새 그렇게 한다면 성 하나쯤 못 쌓겠소?”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산정에는 두 장사에 의해 성이 만들어졌다. 권·김 두 장사가 쌓은 성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 권금성이 되었다고 한다.

일반적인 성과는 달리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해 비교적 진입하기 쉬운 부분에만 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높은 곳에 있는 만큼 방어하기에는 쉬웠을지 모르나 식량과 물을 운반하기에 어려웠을 것을 생각하면 장기적인 대치상황보다는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케이블카를 이용하지 않고 권금성에 가려면 비선교를 지나 남쪽 급사면으로 오르는 가장 빠른 직선길을 통하거나 비선대에서 완만한 사면을 타고 산성의 남서쪽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두 길 모두 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힘든 길이다. 케이블카의 설치로 많은 사람들이 권금성에 오를 수 있게 되었지만 환경파괴라는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권금성을 둘러싼 기이한 봉으로 실요극, 방령대 등이 있는데 이 산 자락에 오르면 시원히 트인 동해안과 신흥사, 울산암, 금강굴 일대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외설악에 들어서서 권금성에 오르지 않고서는 설악을 제대로 구경할 수 없다할 정도로 전망이 좋아 연중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이곳을 설악의 선경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관광객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절경을 감상할 뿐 권금성이라는 유적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무너진 부분을 최대한 복원하고 고려 시대 때 축조된 성이라는 점, 전해 내려오는 전설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관광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시인 묵객의 사랑을 받은

飛仙臺
비
선
대



소공원에서 남서쪽으로 2.3km, 울창한 산림 사이를 산책하듯이 걸어 올라가면 거대한 암반을 만날 수 있다. ‘신선이 하늘로 올라간 곳’이라는 뜻을 가진 비선대는 그 아래쪽에 있는 와선대에 누워 경치를 감상하던 마고선녀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마고선녀에 대한 전설은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데 마고할미, 매고할망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비가 많이 내리면 바위 위로 흘러 몇 번이나 꺾이는 폭포를 이루는데, 바위에 폭포를 이루는 광경은 흡사 우의 자락이 펼쳐지는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예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감상했다. 비선대 뒤로는 미륵봉이 우뚝 솟아 있

고 남쪽으로는 천불동 계곡, 서쪽으로는 마등령으로 이어진다.

비선대에는 바위에 많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다. 대부분의 글자들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인데, 이것을 살펴보면 관찰사, 부사 등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풍류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많은 글자 중에서 초서체로 쓴 ‘비선대(飛仙臺)’가 대표적이다. 이것은 1미터 정도의 크기인데, 윤순(尹淳)이 쓴 것이라고 《양양읍지》에 기록되어 있다. 윤순은 영조 임금 때 관찰사를 지낸 사람으로 당시 최고의 명필로 소문이 났던 인물이다. 현재는 아쉽게도 오랜 세월의 풍화에 의해 글자가 희미해졌으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훌륭한 글씨이다.

이 각자 중에는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불운의 혁명가 김옥균의 이름도 찾아볼 수 있다. 아버지가 양양부사로 부임할 때 함께 이곳을 찾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김창흡은 아래와 시를 남기기도 했다.

瓊臺府金潭

石扇排靑峰

融時備衆妙

豈惟勢奇壯

경대(瓊臺)같은 맑은 물을 굽어 보니

부채같은 청봉(靑峰)이 그곳에 펼쳐졌네.

이곳이 생길 때 묘리(妙理)를 갖추었는가?

그 세(勢) 어찌하매 비리도 기장(奇壯)한가!

국내 최고의 명산

설악산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을 찾기 힘든 것이 설악산이다.

수많은 계곡과 능선에 사시사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비경을 감추고 있으며 곳곳에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에 걸쳐 있으며 북으로는 금강산을 거쳐 고원지대로 통하고 있고 남으로는 오대산, 태백산을 거쳐 차령, 소백산맥으로 통한다. 398.237km²에 이르는 면적에 수많은 동식물들이 분포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아직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다닐 수 있는 늦가을부터 꽃이 피는 늦봄까지, 계절을 잊은 듯 눈이 쌓여있기도 하다. 모두들 저마다의 감동을 안고 돌아가는 곳이 설악산이다.

설악이란 이름은 삼국사기에 ‘설산(雪山)’ ‘설화산(雪華山)’으로 기록되어 있고 양양군지에는 ‘한계산(寒溪山)’으로 기록되어 있다. 시조 시인 노산 이은상 선생은 설악산은 본래 ‘솔피’였는데 한자로 쓰다 보니 설악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솔피’의 ‘솔’은 ‘설’의 음역으로 신성, 숭고, 결백, 생명을 뜻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최고봉인 대청봉을 중심으로 마등령, 미시령으로 이어지는 설악산맥, 귀대기청봉, 대승령으로 이어지는 서북주능, 화채봉, 칠성봉으로 이어지는 화채능선 등 3개의 주능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능선을 경계로 서쪽은 내설악, 동쪽은 외설악, 남쪽은 남설악으로 불리고 공룡능선, 용아장성, 울산바위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산악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속초시 구역에 속하는 외설악 지역은 관광 중심지로 7번국도, 물치를 지나 설악동에 이르면 국립공원의 중심부를 이루는 지역으로 천불동 계곡을 중심으로 와선대, 비선대, 금강굴, 문수담, 보현봉, 취적봉, 노적봉, 문필봉 등의 높은 산이 이어지고 육담폭포, 비룡폭포, 선녀봉, 토왕성폭포, 화채봉 등의 명소가 있다. 또한 신흥사로부터 북쪽으로 울산바위에 이르는 계곡과 설악동 남쪽의 권금성 등은 외설악의 절경을 보여주고 있다.

계곡도 아름다운 곳으로 십이선녀탕, 구곡담, 천불동계곡을 중심으로 많은 폭포와 다양한 소(沼), 담(潭) 등이 주위 암석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설악산은 1965년 11월 5일부로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제 171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로서 보호되고 있으며, 또한 1970년 3월 24일 국립공원 제 5호로 최초 지정된 후 1978년 4월 10일 3회에 걸쳐 구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베리아아구와 중국아구의 동식물이 교차되는 지역으로서 지리적으로 시베리아구의 바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상 북한의 고지대와 연결하는 태백산맥 북쪽에 위치한 높은 지대이기에 시베리아구의 동물들이 남하하여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설악산 일대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자연자원의 서식지로 인정되어 1982년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로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으로부터 카테고리 II(국립공원)로 지정 받았다.

병풍을 펼친 듯 아름다운

청 대 산



소나무가 많아 항상 푸르다고 하여 청대(靑岱)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해발 230m로 산에 오르면 속초시 전경과 청초호, 영랑호, 동해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고, 울산바위, 달마봉과 함께 설악산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천연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다. 평탄한 정상부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부분은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 속초8경에 속하며 예부터 병풍을 펼쳐 놓은 것 같다 하여 청대화병(靑臺畫屏)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이 지역은 많은 유물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편은 청대산 정상 부분과 현재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동쪽 사면에서 채집되었다. 또한 정상 평탄면에서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어골문평기와

편 1점을 수습하였고, 주변에는 많은 수의 기와 조각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로 보아 고려나 조선시대에 어떠한 시설물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나 역사적 기록이나 내용이 없어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청대산 유물산포지는 강원 영동지역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청동기시대 유적이거나 유물산포지 중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주거지 역할보다는 방어용이나 전망용의 임시적인 주거형태를 취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청대산은 사계절 속초 시민이 즐겨 찾는다. 왕복 한 시간 정도의 가벼운 등산로가 능선을 따라 여러 갈래로 조성되어 있고, 휴식을 위해 만들어 놓은 편의시설로는 팔각2층 전망대, 산림욕대, 사진촬영대, 목교 등이 있으며, 체력단련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정상을 지나 반대쪽으로 내려가면 연중 맑은 샘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신라샘이 있어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준다. 청대산 끝자락 청수산 암반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100여 년 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이용했다고 한다. 이 물로 씻으면 풀독이나 부스럼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신라샘을 지나 1시간가량 올라가면 주봉산까지 이어져 등산 코스로 각광 받고 있으며 정상을 넘으면 목우재를 거쳐 달마봉까지 오를 수 있다.

철새의 보고

청초호



미시령에서 흘러나오는 청초천이 동쪽으로 흐르면서 학사평과 소야 평야를 이루고 조양동을 거쳐 바다에 이르기 전에 흘러드는 곳이 청초호다. 잘록한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는 이 호수의 면적은 1.38km², 둘레 5km의 석호다. 좁고 긴 사주(砂洲)에 의해 동해와 격리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북쪽 입구가 열려 있다.

청초호는 영랑호와 쌍을 이룬다하여 쌍성호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진성호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양양의 낙산사 대신 이 일대를 관동8경의 하나로 들고 있다. 과거에 양양군에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환영 잔치를 이 호수위에서 베풀었다고 한다. 밤에 배 위에서

불꽃놀이를 하여 논뉘호 불꽃놀이라 한다. 논뉘호란 논산 앞 호수란 뜻으로 지금의 청초호를 지칭하는 것이다.

청초호는 지금의 영랑호처럼 한겨울 얼음이 평평하지 않고 마치 논밭을 갈아 놓은 두렁같이 곱이 저 ‘용갈이’(龍耕)라 하며 얼음의 형태를 보고 새해농사를 점쳐왔다는 유래가 있다. 전설에 따르면 영랑호에는 암용이, 청초호에는 솟용이 산다고 하는데 얼음의 형태가 남쪽을 향해 갈아 놓았을 때는 풍년이 들고, 북쪽을 향해 엇갈이로 갈아 놓았을 때는 흉년이 든다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입구 쪽은 바다에 접해 있어 조선시대에는 수군의 배를 정박시켰다고 전한다. 또한 “쌍성호(雙成湖) - 부(府) 북쪽 40리 간성군과의 경계에 있으며, 둘레가 수십리에 이른다. 호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고 예전에는 만호영(萬戶營)을 설치하여 병선이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라는 기록도 있다.

석호였던 청초호가 항구로 개발된 것은 일제강점기 말이다. 좁은 입구를 파내 수로를 만들고 축대를 쌓아 항구로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속초가 커지기 시작했다. 속초시가 청초호를 중심으로 발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항구의 개발과 속초의 태동과 맞물리는 것이다.

바닷길이 열린 것 외에 청초호는 또 다른 변화를 겪었다. 원래 넓이의 1/3을 매립해 유원지로 개발한 것이다. 현재 청초호 상류는 철새도래지로, 철새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호수 남쪽으로는 속초시민식수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호수 둘레를 따라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보행자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다.

화랑의 전설이 깃든

영 랑 호



영랑호는 청초호와 마찬가지로 석호다. 그러나 청초호와는 달리 훼손이 되지 않아 비교적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장사동,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등 4개 동에 걸쳐 넓이 약 1,21km², 둘레 7km 정도의 영랑호는 사시사철 언제 찾아도 탄성을 자아내는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척산·오색·장수대 등과 함께 설악산관광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잉어·붕어 등의 민물고기와 전어 등의 바닷물고기가 함께 서식하고 있다.

영랑호라는 이름은 신라시대 화랑에서 비롯되었다.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신라시대 화랑이었던 영랑이 동료인 술랑, 안상, 남석행 등과 금강산

에서 수련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성 삼일포에서 3일 동안 놀고 난 후 각자 헤어져 금성(현재의 경주)을 향해 가던 중 영랑은 이 호수를 만나게 되었다. 명경같이 잔잔하고 맑은 호수에 빨간 저녁노을로 한결 웅대하게 부각된 설악산, 울산바위, 그리고 웅크리고 앉은 범바위가 그대로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그만 그 아름다움에 매료당한 영랑은 금성으로 돌아가는 것도 잊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풍류를 즐겼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영랑신선무리가 놀던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구슬을 감추어둔 것 같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랑호 변에서는 아득한 옛날에는 화랑과 도사들이 찾아와 수도를 했고 지금은 이름난 궁사들이 궁도를 연마하는 활터도 있으며, 춘하추동 4계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침이면 수많은 속초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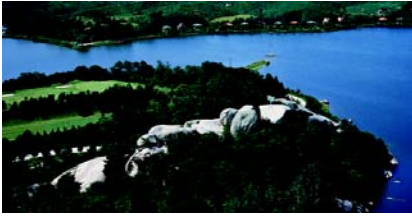
철새도래지로도 유명한데 특히 백조의 무리인 고니떼가 날아와 장관을 이룬다. 천연기념물 201호인 고니는 오리과에 속하는 조류로 10월 하순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듬해 4월 되돌아가는 겨울 철새이다. 고니 외에 청둥오리, 가창오리까지 함께 날아들어 늦가을부터 봄까지의 월동 기간에는 철새의 군무로 장관을 이룬다.

영랑호 주변(속초의료원 뒤 남서쪽) 산봉우리에 커다란 바위가 여러 개 모여 있다. 이를 관음암(觀音岩)이라 한다. 전설에 의하면 오랜 옛날 이곳에 수목이 우거지고 인적이 드물 때 어느 도사가 이곳에서 수도를 하던 중에 관음보살이 나타나 득도를 도왔다고 하여 관음암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주변에는 속초 8경의 하나인 범바위가 있으며 그 주위에 잔디밭이 조성되어 가족과 직장 놀이터로 각광 받고 있다.

영랑호에 깃든 호랑이

범 바 위



범바위는 영랑호 중간지점 서남쪽에 있는 큰 바위로 마치 호랑이 모습으로 생겼다하여 범바위라 불린다. 저녁노을이 질 때 바라보면 설악산에서 내려온 범이 영랑호에 목을 축이러 내려온 것만 같다. 이같은 아름다움과 신비스러움 때문에 속초 8경의 하나로 선정되었고, 영랑호의 절경을 더욱 신비스럽게 한다.

이 바위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성스러운 기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무당들의 가무가 빈번히 행하여지고 기도를 올리기 위해 찾아드는 사람들 또한 줄을 잇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도 가끔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곤 한다.

범바위 주변은 지금은 옛날 모습이 사라지고 영랑호리조트의 골프장

이 인접해 있고 소풍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범이 출몰한다고 했을 정도로 삼림이 울창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고 한다.

범바위 위로 오르면, 하나의 바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바위가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크고 작은 바위들이 모여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 낸 자연적인 바위군인 것이다.

이 범바위 옆에는 작은 암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 암자에는 한 스님이 오래도록 도를 닦았다고 전하는데, 그 암자가 언제 없어졌는가에 대해서는 확실치가 않다. 다만 속초시 동명동에 자리하고 있는 보광사 창건주인 이순덕에 의하면, 이 범바위 옆에 작은 암자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니, 아마도 암자가 사라진 것이 30~40년 전쯤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범바위는 영험한 바위로 소문이 나 있다. 이곳에 건물을 짓기 위해 범바위를 깨트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는 것이다. 그 뒤로 이 범바위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바위가 되었다.

범바위 옆에는 영랑정이 있는데 호수와 바다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영랑호에 옛 정자터가 있는데 영랑선도들이 놀며 감상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당시 속초지역 수복에 공이 많았던 제 11사단장 김병휘 장군 시절 건립한 금장대가 1970년대 중반까지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 후 퇴락해 6각으로 된 기단부만 남아 있다. 속초시에서는 영랑호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옛 금장대 터에 전통양식으로 정자를 복원하기로 결정, 2005년 준공했다. 명칭은 시민 공모를 통해 역사적 근거가 확실하고 지역성이 가미된 영랑정으로 명명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외 용 치



대포동 끝자락에 있는 전형적인 어촌으로 조선 시대까지 용진(瓮津)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7번국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대포에서 속초로 가려면 현재의 외용치(外瓮峙)를 거치게 되는데 그 길 옆에 밭뚝이 다닥다닥 층계 모양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밭뚝재’라 하였다.

그러던 것이 발음의 변화로 ‘독재’라 불리었고, 그 결과 <면세일반기록> 이후부터 용진(瓮津)이라는 이름 대신 ‘바깥 독재’라는 뜻의 한자 표기인 외용치리(外瓮峙里)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처럼 외용치는 장독처럼 생긴 고개의 바깥에 있다고 하여 밭독재라 불리는 해안가 언덕이다.) 길을 따라서 외용치 언덕까지 올라가보면 우거진 숲으로 해안절벽이 내려다보인다.

속초8경으로 선정되면서 전망대가 만들어졌는데 아직 주변조성이 되지 않아 쓸렁한 느낌도 없지 않지만 그만큼 호젓함을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보면 속초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등대, 조도

그리고 백사장에 밀려드는 파도의 경관이 어우러져 아름답다. 속초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곳이어서 해마다 1월 1일에는 일출을 보려는 많은 여행객들이 몰려든다. 조선시대 덕산 봉수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외옹치에는 성황당이 있는데 매년 음력 3월과 9월 성황제를 지내고 3년에 한 번 마을 대동제를 지낸다. 외옹치의 성황제는 장승제와 성황제 풍어제를 순서대로 지내는 것이 독특하다. 대동제가 열리기 하루 전날에는 마을로 들어오는 도로가에 마을 장정들이 조각한 장승을 세운다. 이로써 장승제가 시작되는데 지금도 마을 입구에 가면 남녘 한 쌍의 장승을 볼 수 있다. 외옹치에서 대포로 가는 해변가에는 덕대바우(德大岩)라는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빌면 덕이 생긴다고 한다.

외옹치는 성황당이 모셔진 산등성이를 중심으로 마짜마을과 새짜마을로 나뉜다. 뱃사람들의 말로 마짜은 남쪽을 새짜은 동쪽을 뜻한다. 특히 새짜마을은 셋바람이 세차고, 마짜마을은 주위산이 삼태기처럼 마을을 에워싸 아름답고 따사로웠다고 한다.

외옹치 해수욕장은 외옹치 마을 내에 있는 해변이며, 철조망이 설치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다가 2005년 여름 30여 년 만에 개방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폐쇄되어 있던 곳이라 그만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청정 해수욕장이다. 수심이 낮고 깨끗해서 가족 단위 피서지로 적합하며 외옹치 해안은 속초8경의 하나로 꼽힐 만큼 경관이 수려한 곳이다.

방파제에서는 낚시가 가능하며 설악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봉우리가 달마봉, 주봉산, 청대산을 거쳐 항포구를 감싸고 있어 관광개발지로 각광받고 있는 항이다. 근처에 외옹치항을 비롯한 활어판매장이 있어 대포항의 떠들썩함과 달리 한가롭게 싱싱한 횡감도 즐길 수 있다.

신비의 음곡을 숨긴

영금정



속초시 동명동 속초등대 아래 바닷가에 넓은 암석들이 많이 깔려 있는 곳이 영금정이다.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주위 경치가 빼어나 사시사철 관광객의 휴양지, 피서지 또는 낚시터로 널리 애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변유원지로 개발되어 활어횃집 및 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영금정은 누각이나 정자가 있어서 붙여진 명칭이 아니고, 산꼭대기에 괴석들이 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파도가 돌 벽에 부딪칠 때 나는 소리가 마치 거문고를 타는 소리와 같아서 영금정(靈琴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선녀들이 밤이면 남몰래 하강하여 목욕을 하고, 신비한 노래를 읊으며 즐기는 곳이라고 하여 김정호의 <대동지지>를 비롯한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비선대라고도 하였다. 돌산 위에는 노송이 있었는데 크기가 어른 세 사람이 팔을 뻗어야 겨우 맞닿을 정도였다. 산 정상 바닥에는

장사가 천마를 타고 달린 말발자국이 있었으며 말 죽통같은 괴석도 있었다고 전한다. 또 징바위가 있었는데 이 괴석을 발길로 툭 차면 징소리 같은 괴음이 나서 징바위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징소리는 한 사람 힘으로나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서 차거나 올리는 정도와 소리가 같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석산은 볼 수 없고 석산 자리만 남아 있는데 이는 일제시대 속초항 공사의 재료로 쓰기 위하여 영금정 석산을 깨어 사용했기 때문이다.

속초8경 중의 하나인 영금정은 속초 관광 코스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영금정으로 가는 길에는 동명항활어판매장이 있어 다양한 생선회를 즐길 수 있다. 또 방파제는 많은 낚시꾼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고등어, 학꽂치 등이 몰려오면 방파제는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낚시꾼들로 가득 찬다.

정자 형태의 영금정 전망대도 있는데 이곳은 아름답디 소나무가 하늘 높이 솟아 있는 고깔모양의 바위산으로 예전에는 술섬이라고 불렸다. 이름처럼 과거에는 섬이었으나 지금은 매립을 해 육지가 되었다. 바다 위에서 볼 때 마치 농부가 풀어 베어 단을 즐라맨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속초라는 지명의 유래를 만들기도 했다. 전쟁과 수복 이후 소나무는 벌목으로 모두 사라지고 해안감시초소로 사용되다가 2008년 전망대로 다시 태어났다.

전망대 바로 아래에는 영금정 바위 위에 세워진 해상 정자가 있는데 50m 정도의 다리를 건너면 들어갈 수 있다. 해상 정자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느낌은 방파제와는 또 다른 시원한 느낌을 준다. 이곳에 서면 마치 바다 위에서 바다를 보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만들어내는 포말은 눈을 잃고 바라보기에 충분하다. 전망대 입구에서 등대 전망대 쪽으로 가면 영금정의 유래 및 전설을 상징하는 거문고 형상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마을을 지켜주었던

설악동 소나무



속초시 설악동 20의 1번지에 서식하는 소나무로 1988년 4월 30일 천연기념물 제 351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나무이다. 이 소나무는 수령 500년, 나무높이 16m, 줄기둘레 4m, 가지퍼짐 동서 21m, 남북 19m의 소나무로 설악동으로 들어가는 입구 네거리에서 서 있다.

이 나무는 밑동에 비해 가지가 빈약한 편인데 원래는 지상 약 2.5m에서 갈라진 큰 줄기가 3개 있었으나, 2개는 죽었고 가운데 줄기만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줄기의 가지들은 대부분 튼튼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 나무는 본래 설악동 마을을 지켜주는 서낭나무였다. 마을을 지켜주는 서낭신이 머물러 있는 나무였기에 주변에 돌을 쌓으면 장수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전해져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레 돌무더기 제단이 만들어졌다. 이 돌무더기 제단에서 음력 3월 3일, 9월 9일 등 연 2회 제를 올렸다고 하나,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관광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사라졌다. 지금은 마을 대신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을 지켜주며 세월을 버티고 있다.

펴낸이 노광복
펴낸곳 속초문화원
엮은이 속초문화원 향토사 연구소 연구위원
 손병섭, 박명선, 김정환, 이수영, 엄경선, 장재환, 정종천, 김만중, 정상철, 박찬용
편집 및 찍은 곳 이정종합광고
인쇄일 2012년 12월 20일
발행일 2012년 12월 30일
주소 우 217-010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번지
전화 033) 632-1231, 639-2439
전송 033) 632-1241
홈페이지 www.sokcho-culture.com
전자우편 sc2439@sokcho.org

이 책은 속초시 보조금 및 강원문화재단의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 글과 사진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속초의 문화상징
50選

※ 본 발간물은 속초시 보조금과 강원문화예술 진흥육성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